

文대통령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신년 기자회견
“북미·남북관계, 비관 단계 아냐”
윤석열 총장 일단 신임 속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외신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새해 국정 구상을 공개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청와대 출입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3·4면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가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	
부동산	“부동산 투기 확실히 잡을 것”
경제	“긍정적 지표 늘어나”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조직문화 개선 앞장서야”
외교·안보	“남북관계, 비관 단계 아니다”

에 대한 신뢰 표시와 경고를 함께 보내며 더욱 강한 자정 노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나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하기 위해 손을 든 취재진 중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6년간 29兆 투자·영업익 6% 달성”
모빌리티 솔루션 본격화...2025년 친환경차 판매비중 25%로

기아자동차가 2025년까지 29조 원을 투자하고 영업이익 6%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투자 계획 및 영업이익 목표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12면

기아차는 14일 서울 여의도의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박한우 사장 주재로 CEO 인베스트데이를 열어 선제적 전기차 전환과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향후 2대 사업 목표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아차 중장기 미래 전략 ‘플랜(Plan) S’의 핵심이다.

먼저 기아차는 2021년까지 전용 전기차

를 출시한다. 이를 앞세워 2025년 친환경차 판매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 전기차 50만 대, 친환경차 100만 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도 본격 추진한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사업을 확대한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6% 수준을 달성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은 10.6%를 목표치로 삼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특허는 권력...삼성·애플 생존 걸린 ‘창이자 방패’

특허전쟁 10년
지열한 헤게모니 싸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미국 아마존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주문이 완료되는 ‘원클릭 특허’를 출원했다. 이 간단한 특허는 무려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내며 아마존을 온라인 쇼핑업계 글로벌 1인자로 만들어줬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기업들이 ‘특허 확보’에 사활을 거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1년 4월을 기점으로 삼성-애플 간 금세기 가장 치열한 ‘특허전쟁’이 시작되며, 글로벌 특허분쟁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21세기 ‘특허’는 경쟁사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창

아마존 ‘원클릭’ 특허 하나로 1인자 디자인·스마트폰 모뎀칩 공급 놓고 삼성·애플·퀄컴 등 전면전 양상

이자, 기업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치열하고 격렬한 ‘특허전쟁’ 지난 10년, 미래 10년’을 3회에 걸쳐 신는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악연이 마무리됐다.”

2000년대 들어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지난해 7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1년 4월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디자인 도용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애플은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하며 애플에 맞대응했다. 애플 역시 ITC에 삼성 제품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고, 애플도 한국, 일본 법원 등에 삼성을 제소하고 네덜란드 법원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맞대응했다. 사실상 글로벌 특허대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5면에 계속 권태성 기자 tskwon@

20년설 20살의 마음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 01.03 ~ 01.29

1 선물용 제품 10% 할인 (일부품목에 한함)

2 신규멤버십 가입 후 첫 구매시 알파프로젝트 '혈행건강' 증정 (단, SMS정보수신동의 및 5만원 이상 결제에 한함)

3 홍삼정에브리타임 30/50포 구매시 3/5포 추가증정

4 KB국민/신한카드(App) 청구할인 20/40/60/80만원 이상 결제시 1/2/3/4만원 청구할인 (단, 법인/체크/기프트카드 제외, 1인 1회에 한함) (신한카드 App : 신한페이판 > 마이샵 > 혜택더하기)

* 적용매장 : 가맹점, 직영점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주 한국인삼공사

“집값 급격히 오른 일부지역, 원상회복돼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해 추가 대책은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취임 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책(12·16 대책)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 었다. 이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9억 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은 취임 초 기 수준으로 가격을 되돌릴 정도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시장에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수시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9억 이하 주택 풍선효과 예의주시”
“수시로 추가 대책” 시장에 시그널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신중 검토
취임 초 수준으로 회복 의지 피력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 자본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여서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자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이달 초 신년사에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강한 표현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보유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도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플라 행콕 CNN 서울 특파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원상회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설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안정화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며 시장을 향해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언론이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도 협조를 바란다. 정부

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효과가 먹힌다”면서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 언론에서도 서민 주거를 좀 더 보호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정일환 기자 whan@

경제 분야

“경제 긍정지표 늘어나” 낙관론 “정부 임명 윤종원 비토는 잘못”

〈IBK기업은행장〉

“성장률 2%, 어려움 속에서 선방
‘타다’ 같은 혁신사업 진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 추세를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년사 발표 당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며 “부정적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선 전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다면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지표 개선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도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1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연초 코스피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을 들며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전망을 외국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이 밝게 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쯤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문 대통령은 전망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인구 5000만 명·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이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IBK기업은행장 임명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본연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라며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수장 임명 때마다 제기됐던 ‘낙하산 논란’에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혁신’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규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풀고 있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롯데칠성음료

커 다 란
따 뜻 함 이
밀 려 온 다

BIG SIZE COFFEE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을 거 읊, 온 장 고 에서 가 장 큰 커피 를 만 나 다

2019년 11월 기준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인사안 요구는 초법적… 이 건으로 윤석열 평가 안해”

검찰개혁

尹, 檢개혁 나서면 신뢰받을 것
억울하겠지만 검찰 여전히 막강
장관·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검찰에 ‘국정방향 동참’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신뢰와 경고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총장이 검찰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동참하라는 경고가 함께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



시민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 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은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개혁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럼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들어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를 대통령에 제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거취 문제와 연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여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빛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남북 협력 넓혀가면 제재 완화 지지받을 것”

남북·외교 분야

대화 통해 협력 확대 노력 지속
상응 조치, 어떻게 풀지가 과제
일, 강제징용 문제 해법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관계와 북미 간 대화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버릴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며 “남북 관계가 지금 북미 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협력을 넓혀가면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대북 제재의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 말하자면 상응 조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지금 북미 대화의 과제”라며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착이 오래간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는 공고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고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그래도 지금 남북관계 발전,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은 ‘뭔가 도발적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까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 메시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4월 총선 통해 정치문화 달라져야”

정치 분야

‘정부 성공’ 막는 국회 안돼
협치 내각 가능성 내비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여야 대립으로 ‘협치’가 어려운 현실 정치의 문제를 토로하면서 “다음 총선을 통해 (여야협치가 어려운) 정치 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누차 강조하지만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는 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 극한 갈등을 빚는 현 정치권의 상황을 언급하며 “말로는 민생경제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 동력 중 하나로 협치내각을 제시하면서 4·15 총선 이후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내각의 현실화 가능성 또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협치 내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각제의 연합정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당별로 일률 배정하거나 특정 정당에게 (장관) 몇 석을 주는 것은 어렵다”며 “전체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 방향에 공감하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치내각은 협치를 위한 야권 인사의 입장을 뜻한다.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 의 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미 앞서 지난해 청와대는 임기 전반기에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을 제안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통합의 정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제안도 (야당에) 했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정치풍토에서는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에서 배신자로 평가받는 것을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 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발탁 또한 협치와 통합이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며 “3권 분립 침해라는 정치적 공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 국무총리를 발탁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국회 사이 협치 정치에 대한 큰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與 “변화 위한 의지 확인” vs 野 “무능과 오만 극에 달해”

정치권 반응 엇갈려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자화자찬’이라며 사안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담대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

찰개혁, 국민통합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정신으로는 차마 깔까지 볼 수 없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이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북한의 대화의 의지’를 꿰뚫어 보는 해안,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협치’를 운운하는 답대함”이라며 “국민 분열에 송구하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고초를 생각해

이제 그만 국민들이 놓아주면 좋겠다는 인간미”라고 설명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경제, 외교, 안보 총체적 파탄 속에 정책 잘못은 인정 않고, 앞 정권 탓 시간 탓만 난무했다”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론이 부정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며 언론 탓까지 하는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달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균형적이었다면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보좌진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전보장, 노 비서실장.

연합뉴스

IT 넘어 바이오까지 삼키는 ‘특허 괴물’들

특허전쟁 10년

대기업 904건·중소 104건 집계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체 73%
바이오 2018년 14건으로 늘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비실사기업(NPE·Non-Practicing Entity)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NPE는 먹을거리가 큰 대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엔 바이오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NPE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 사용자에게 소송, 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 피소 건수는 1008건이다.

타깃을 대기업으로 잡은 건수는 904건, 중소·중견기업으로 잡은 건수는 104건이다. 이 같은 특허 소송은 미국 시장을 확대하려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우리 대기업의 피소 건수는 2016년 감소한 뒤 다시 증가 추세다. △2014년 256건 △2015년 245건 △2016년 111건으로 감소한 뒤 △2017년 138건 △2018년 154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연평균 피소 건수가 20.8건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주를 이뤘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소·중견 기업보다 대기업이 뜯어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2014~18년 전기·전자는 379건, 정보통신은 483건으로 이 두 분야의 피소 건수는 전체의 73.7%에 달했다. 특히 최근엔 화학바이오 분야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2015~17년 연도별 2건에 불과했던 화학바이오 피소 건수는 2018년 14건으로 약 7배 늘었다.

또 지난 5년간 피소 1008건 중 NPE를 통한 피소는 764건으로 75.8%에 달하는 등 NPE의 공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들 특허 괴물은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세워 소송을 제기한 뒤 다음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적당한 선에서 로열티를 받고 합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보유한 특허를 다 소진하면 신규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쓴다. 소송을 걸고 기업이 맞서 대응하면 다른 소송을 또 걸어 해당 기업을 힘들게 한다. 한마디로 걸릴 때까지 여기저기 찔러보는 방식이다.

다만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던 우리 기업

이 최근 역공을 하는 모양새다. 피소 대비 제소 건수가 현저하게 낮았던 우리 기업의 제소 건수가 2018년 104건으로 급증했다. 제소 건수가 2014년 20건, 2015년 및 2016년 각 8건, 2017년 21건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큰 증가세다.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IP)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분장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 효과적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NPE 소송 활동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 분야별 NPE 분쟁 동향과 대응전략보고서 자료를 제공해 외국 진출 혹은 예정 기업의 지재권 전략 수립을 돕고 있다. 또 수출 전 수출제품 관련 해외 경쟁사, NPE 등의 핵심특허를 조사·분석해 분쟁 위험성을 사전 분석해 대응 전략도 제시해준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삼성·애플 ‘특허분쟁’ 7년 중국 후발업체만 ‘덕’ 봤다

양사 소송 피로감에 합의 봤지만
스마트폰 개발 지연되며 시장 정체
애플·퀄컴 ‘30兆 분쟁’ 극적 합의
LG는 양문형 냉장고·TV 소송중

▶1면서 계속

2013년 11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2억90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판결했다.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 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삼성과 애플은 2014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8년 양측의 소송 종결로 삼성과 애플의 7년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양사가 길고 긴 공방을 끝낸 것은 누적된 소송 피로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려 7년이나 긴 소모적인 싸움을 벌여왔고, 그 사이 중국 등 후발업체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스마트폰의 교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싸움을 이어가 봤자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후발주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분석이다.

애플과 퀄컴은 ‘짧고 굵게’ 30조 원 규모

주요 기업 특허전쟁

삼성 vs 애플

- 2011년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디자인 도용 혐의로 삼성 제소
- 삼성, 한국·독일·일본 법원에 애플 제소
- 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프랑스 등으로 소송 확대
- 2018년 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 7년 분쟁 종지부

애플 vs 퀄컴

- 2017년 애플, 퀄컴이 독점지위 이용 특허 사용료 과도하게 요구 제소
- 퀄컴, 애플과 제조업체들이 계약위반...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 요구
- 2018년 라이선스 계약 체결... 2년 만에 합의

화웨이 vs 삼성

- 2016년 화웨이, 삼성전자가 4세대 통신 표준 특허 침해 제소
- 삼성전자 맞대응... 표준특허 침해 소송
- 2018년 크로스 라이선스 합의... 3년 특허분쟁 종결

의 특허전쟁을 벌였다. 2017년 애플은 “스마트폰 모뎀칩 공급업체인 퀄컴이 독점 지위를 이용해 2013년부터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했다”며 소송했다. 애플과 아이폰 제조업체 4곳은 퀄컴을 상대로 27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퀄컴은 애플과 제조업체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최소 7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보상도 요구했다.

양측의 법정분쟁은 2년 만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마무리됐다. 퀄컴과 애플은 지난해 4월 분쟁을 종결하면서 6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퀄컴이 애플에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용 모뎀 칩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아르첼리, 베코, 그룬디히를 상대로 양문형 냉장고 특허 기술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이센스를 상대로는 TV 관련 특허 침해, TCL은 휴대폰 LTE 통신기술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전쟁이라는 게 주로 시장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글로벌 특허분쟁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본다”며 “특허를 쥐고 있는 것이 곧 힘이고 경쟁력인 시대”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KYOBO 교보증권

70th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교보증권 창립 70주년

로보서비스 무료이벤트

신용공여이자를 혜택이벤트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이벤트

EVENT 01

로보서비스 무료 이벤트

대상

로보서비스(투자자의달인, 파봇, 스톱봇) 이용 무료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교보증권 기존 및 신규고객

로보서비스 소개

1 투자자의 달인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투자 추천

· 투자상황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2 파봇

· 머신러닝, 기술분석, 재무분석, 수급분석, 가치분석, 성장성 분석 등 총 6가지 평가요소를 통해 종목점수를 산정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3 스톱봇

· 2개의 로봇연관인 시점과 패턴을 분석하여 종목과 매수시점을 골라주어 알려주는 서비스

교보증권 MTS(Min.K) · 권태성 · 로보/재무서비스에서 가입

EVENT 02

국내주식 신용공여 혜택 이벤트

대상

신용공여이자를 연 5.9%, 담보대출이자를 연 5.5%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면 고객의 비파면 계좌개설 건

EVENT 03

해외주식 담보대출 인하 이벤트

대상

매각담보대출 연 4.1%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기간에 발생한 담보 대출건

EVENT 04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 이벤트

대상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 인증

3 주소 등 정보 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 인증

6 신청완료

투자자 유의사항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적용 담보비율 미달 시 기간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용량의 일부를 차탈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는 투자 위험도, 거래비용, 환율, 매매방법 등 국내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 또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으로 인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해당 시 0.014%의 주식매매수수료를 적용합니다(당초 현재까지 기준 1개 적용, 주당매매건당 신규계좌만 한 해외 주식 기본 매매수수료는 전 시장 0.3%에 반의(반의)이며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0HKD, 중국 100CNY로 자체선 사항인 종례(지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 및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해당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각 담당점 및 소비자 지원센터(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보서비스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정보는 수리(달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설 상여금’ 기업, 작년보다 줄었다

경총, 509개사 실태조사
10곳 중 4곳은 “상여금 없어”
70% “작년보다 경기 나빠져”
80% “연휴기간 휴무는 4일”

70%가 넘는 기업들이 올해 설날 경기가 작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답했다. 반면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기업들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 악화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지난해보다 줄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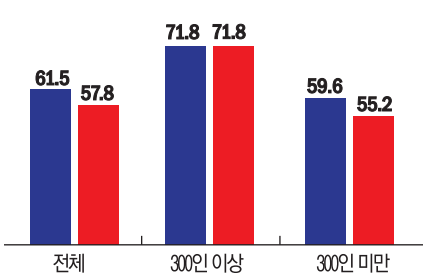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50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설 연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0.1%는 올해 설 경기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올해 경기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26.9%, 나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3%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 중 지난해보다 악화됐거나 그대로라고 응답한 비중은 96.2%인 반면, 좋아졌다고 대답한 기업은 3.8%에 그쳤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97.2%가 경기가 나빠졌거나 정체됐다고 답했고, 2.8%

설 상여금 지급업체 비율(단위: %)
■ 2019년 ■ 2020년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만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시장이 침체되면서 설 상여금을 지급할 기업 숫자도 줄어들었다. 응답 기업의 57.8%가 설 상여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5.2%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작년에는 59.6%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올해 4.4%포인트 줄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 중 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은 71.8%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상대적으로 300인 미만의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휴무일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응답 기업의 80.3%는 올해 설 연휴에 4일간 휴무한다고 답했다. 5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은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이외에 3일 이하 된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

경총은 “응답 기업의 설 연휴 휴무일수를 평균해 본 결과, 올해는 4일로 작년(4.8일)보다 0.8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설 연휴는 주말과 설 공휴일(월~수)이 이어져 5일 휴무 기업이 69.1%로 대부분을 차지해, 평균 휴무일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올해 설 공휴일은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을 더해도 휴일이 4일이다. 응답 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은 모두 4일 이상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86.5%가 4일 이상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응답 기업 모두 올해 설 연휴에 ‘4일 이상’ 휴무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00인 미만 기업은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의 13.5%는 올해 설 연휴에 3일 이하 쉬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車 리콜 건수 5년새 65% 급증...200만대 넘어 차량 번호로 리콜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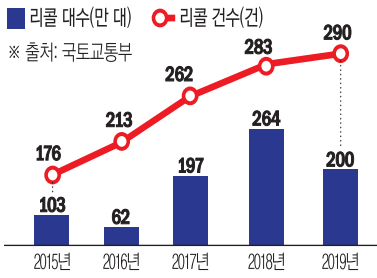
리콜센터 개편...모바일 신고

자동차 리콜 건수가 5년 만에 약 65% 급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확대키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176건에 불과했던 자동차 리콜 건수는 2019년 290건으로 약 65% 늘었다. 자동차 리콜 건수는 2016년 213건, 2017년 262건, 2018년 28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리콜 대수도 최근 들어 200만 대를 훌쩍 넘겼다. 리콜 대수는 2015년 103만 대, 2016년 62만 대에 그쳤지만 2017년 197만 대, 2018년 264만 대, 2019년 200만 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해 개선된 자동차리콜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 현황



센터(car.go.kr)를 운영한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사행으로 그간 리콜 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 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도 강화해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최장수 총리’ 이낙연 퇴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나와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항공·택배 등 ‘피해 주의보’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환불 조건 숙지·영수증 보관 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상당수를 차지(15~25% 정도)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 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는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엘리버드, 팽저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택배의 경우에는 설 명절 전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물품 분실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탈’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국세청, 대기업·재산가 탈세 엄정 대처

국세청은 올해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가 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의 증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등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방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지만, 해

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 △역외탈세 행위 △편법 증여 △고소득 사업자 탈루 혐의 등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국세청은 이달 초를 전후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A법인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에 대한 정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제약 등 도소매 유통과 유흥주점·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그리고 자료상 등에 대한 세무 검증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매출 준 아웃렛 매장에 ‘임대료 인하 요구권’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매장개편으로 매출 감소시 요청

앞으로 복합쇼핑몰·아웃렛 매장 임차인은 사업자의 매장개편(MD)에 따른 매장 이동 등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면 사업자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복합쇼핑몰·아웃렛 표준계약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감액 요청 사유로는 유통업자가 협의도 없이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입점시켜 매출이 감소할 경우, MD에 따른 매장 이동으로 매출이 감소할

경우, 인근 주변에 쇼핑몰이 들어와 매출이 감소할 경우 등이다.

유통업자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매장 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유통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장 임차인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장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 시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에 공동으로 적용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면 유통업자가 반품,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계약 체결 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상품의 무상 또는 저가 취득 등 각종 불공정행위

금지 사항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토록 하고,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했다. 또 판매 촉진 행사 시 전체 판촉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판촉사원의 업무에 대해 유통업체가 지시·명령을 하거나 근무 시간·업무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강제지침이 아니다. 다만 유통업자가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사용할 경우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직권조사 면제 등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짜

: 사회와 기업이 단짜이 되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짝짝짝’ 박수 받음을 뜻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짜’ 지어, 더욱 박수 받는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美, 中 ‘환율조작국’ 해제… 韓은 여전히 ‘관찰대상국’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 고조
위안화 가치 5개월 만에 최고
美 증시 등 글로벌 시장 환호
韓, 대미 무역흑자 요건 등 발목

미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지정 해제해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한국에 대해선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해 8월 달러·위안 환율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을 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1994년 빌 클린턴 정권 때 이후 25년 만이었다.

이날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실행 가능한 약속을 했고, 환율 정보 공개에도 동의했다”며 지정 해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이를 뒤로 다가는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명식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 반)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 10개국					※ 출처: 미국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억 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최소 2% 이상(%)	GDP 2% 초과 외환 순매수(%)	총족 요건 수 (개)	작년 5월 보고서 대비
중국	4010	1.2	-0.3	1	동일
일본	690	3.4	0.0	2	동일
독일	670	7.3	-	2	동일
아일랜드	500	-0.8	-	1	감소
베트남	470	1.7	0.8	1	감소
이탈리아	330	2.8	-	2	동일
말레이시아	260	3.0	-0.3	2	동일
스위스	220	10.7	0.5	2	신규
한국	200	4.0	-0.5	2	증가
싱가포르	-40	17.9	9.0	2	동일

※ 빨간 글씨는 조건 해당된 경우 ※ GDP 2% 초과 외환 순매수에서 ‘-’표시는 외환시장 개입 없었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반기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마·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공표가 평소와 다르게 이뤄졌다. 5월 말에나 상반기 보고서가 제출됐다. 하반기 보고서는 10월이나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무역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를 계속 늦췄다가 이제야 발표한 것이다.

시장은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라는 미국의 우호적인 움직임에 환호했다. 장종예고 기사가 나오자 뉴욕증시 S&P500지수는 0.7%, 나스닥지수는 1.0% 각각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도 0.3% 상승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꼬리표를 떼면서 달러화당 위안화 가치는 14일 중국 상하이역내 시장에서 6.88위안 선으로 치솟으며 지난해 8월 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미국 재무부는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된 국가를 종전의 9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렸다. 중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내려갔고, 스위스가 다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①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이거나 ②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일 때, ③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경우 등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건이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최소 1년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5월 ②번 항목에만 해당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을 기대했으나, 이번에 ①번까지 해당하게 되면서 기대가 꺾이게 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국 車시장, 작년도 ‘후진기어’

신차판매 8.2% 감소… 2년째 마이너스

약 30년간 폭주해온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에서의 신차 판매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3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차 판매 대수는 2580만 대로 전년보다 8.2% 감소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을 배경으로 중국의 소비가 침체하면서, 2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 실적을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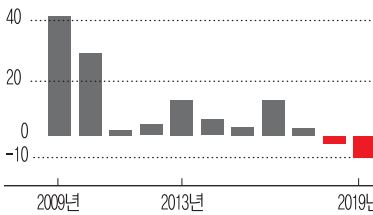
중국 자동차 시장의 우울한 분위기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중국상공회의소 자동차딜러협회가 작년 4월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영업소 1400곳 가운데 53.5%가 2018년에 손실을 냈다. 또 작년에는 1~9월 사이 폐업한 영업소가 1000곳에 이르며,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6000개 영업소가 문을 닫았거나 닫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 영업소의 20%가 문을 닫는 셈이다.

위기는 중국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불어닥쳤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2019년 중국 판매가 전년 대비 15% 줄어든 309만 대에 그치며 2년 연속감소했다. GM의 경쟁사인 포드자동차도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 대수가 2018년보다 26.1% 급감한 56만7854대로, 3년 연속 줄었다.

또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 판다오토 모빌트레이드는 2015년에 영업소를

중국 신차 판매 대수 추이

(단위 : %, 전년 동기 대비) ※출처: Wind



700개까지 늘리며 급성장했지만, 이후 실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300곳 이상이 폐업했다.

중국 시장 내 이상 조짐은 2018년 초부터 감지됐다. 2015년 시작된 세금 환급이 종료되고, 마·중 무역갈등이 본격화하면서 하향세가 선명해졌다.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변경도 상승세를 꺾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보조금 중단 이후 12월까지 6개월 연속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도 한몫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 여력이 줄었고, 중국인들은 비싼 자동차 소비부터 줄였다.

그 결과, 상하이자동차, 지리자동차 등 중국 업체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한국 등 해외 기업들이 줄줄이 울상을 짓게 됐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중국 판매 부진으로 글로벌 판매가 7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자차 보유율이 다른 주요 시장에 비해 낮은 이유에서다. 김서영 기자 0jung2@



비운의 형제 형제지간인 영국 윌리엄(오른쪽) 왕세손과 해리 왕자가 2015년 11월 8일(현지시간) 런던 전물장병 기념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서 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8일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형제의 불화가 새삼 조명을 받았다. 형인 윌리엄 왕세손은 이후 동생과 갈라서게 됐다며 “슬프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3일 긴급 가족회의를 열고 해리 왕자 부부의 독립 희망을 수용하기로 했다. 런던/AP연합뉴스

‘부장님 히스테리’ 이유가 있었네~

학문적으로 ‘중년의 위기’가 실재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데이비드 블랜치폴라워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이날 전미 경제연구소(NBER)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사람들이 40대 후반에 가장 불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논문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47.2세의 중년층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처해있다. 후진국은 그보다 좀 늦은 48.2세였다.

블랜치폴라워 교수는 132개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생활 만족도와 연령의 관계를 측정,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그는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의 평생에 걸쳐 U자형의 ‘행복곡선’이 나타난다”며 “중간 임금이 높은 그렇지 않든, 평균 수명이 길든 짧은 상관 없이 이런 궤적은 모든 지역에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블랜치폴라워 교수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미국(3.5%)과 한국(3.5%), 일본(2.4%) 등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4% 밑으로 내려가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중년층이 불행을 느끼는 현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년층이 불행에서 전혀 헤어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블랜치폴라워 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행복은 다시 회복된다”며 “실제로 행복 정도는 70대

“40대 후반, 가장 불행한 상태”
“U자형 행복곡선” 美논문 눈길

에 다시 20대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중년기가 얼마나 암울할지라도 행복곡선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화의 도래로 사회 내에서 정신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랜치폴라워 교수는 이날 NBER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 “그레이트 리세션(Great Recession·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리킴)”으로 인해 공동체의 회복력이 세계화보다 뒤처지게 됐다”며 “그만큼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충격을 견디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변효선 기자 hsbuyn@

‘500달러 돌파’ 테슬라 주가 ‘목표가 상향’ 경쟁하는 애플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파죽지세(破竹之勢)다. 테슬라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애플리스트들도 목표 주가 수정에 분주해졌다.

13일(현지시간) 나스닥거래소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9.77% 폭등한 524.86달러(약 60만4300원)로 마감해 2010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500달러 선을 돌파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03% 폭등했다. 같은 기간 10% 오른 뉴욕증시 S&P 500지수에 비하면 10배 이상 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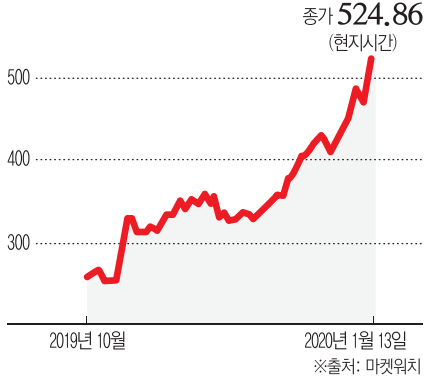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애플리스트들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테슬라 주가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콜린 러쉬 오픈하이머 애널리스트는 이날 테슬라 목표주가를 385달러에서 612달러로 60%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그의 새 목표주가는 32명의 애널리스트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테슬라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734달러의 엘라자르어드바이저스의 차임 시겔이다.

지난주에도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애거스리치 치의 빌 셀레스키는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출하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이는 모델3의 인기를 입증하고 ‘모델S’와 ‘모델X’ 판

테슬라 최근 3개월간 주가 추이

(단위 : 달러)



매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목표주가를 556달러로 높였다.

크레디트스위스 애널리스트들은 목표주가를 200달러에서 340달러로 상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비록 우리의 새 목표주가가 실제 주가보다 밑에 있지만, 이번 상향은 여러 측면에서 테슬라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시가총액은 약 946억 달러에 달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자동차 시총을 합친 것(약 866억 달러)보다 많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의 첫 고객 인도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막춤으로 화제가 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윤종원 기업은행장, 취임 첫 경영현안점검회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경영 혁신”

노조 출근저지로 외부서 진행
국내외 경제 동향 점검·논의
‘혁신금융 TF’ 신설도 주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열흘 만에 가진 첫 공식회의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노조의 출근 저지로 외부에서 개별적인 업무미팅을 진행해왔던 윤 행장이 임원들과 공식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직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13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새해 첫 ‘경영현안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종원 은행장과 전 임원들이 참석했다.

경영현안점검회의는 월 2회 은행장 주재로 전 임원들이 모여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주요 경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정례회의다.

윤 행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 개혁 등을 통한 ‘혁신금융’ 선도,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13일 금융연수원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등 ‘경영 혁신’을 강조하며 ‘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주문했다.

또 마이단 갈등 등 국제 경제상황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시장 상황 등을 점검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등도 논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주제

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은행장의 의지”라며 “현재 사업그룹별로 업무 현황과 계획 등을 보고 받고, 경영 계획을 구성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같은날 서울을 지로 본점 강당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윤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의 경과를 설명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는 노조 대의원 200~300여 명이 참석해 윤 행장 출근 저지 투쟁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행장은 3일 첫 출근이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이후 이날까지 열흘 넘게 본사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한 윤 행장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윤 행장은 본점 대신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원격 업무에 나선 상태다.

김범근 기자 nova@

은행 사칭 스팸문자 ‘원천봉쇄’

금감원, 대응 시스템 구축 MOU

은행을 사칭하는 불법대출·대출사기 문자를 걸러주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은행연합회, 후후앤컴퍼니 등과 함께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윤석현 금감원장은 “대출사기는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대출사기 문자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피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불법대출·대출사기 문자는 2017년 하반기 31만 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5만 건으로 2년도 채 안 돼 2배 이상 뛰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를 걸러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4개 은행에 사전 테스트를 했다. 은행이 대고객 문자 발송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스팸문자를 걸러주는 방식이다.

그 결과 일별 최소 5개에서 최대 50개의 스팸발송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로 환산하면 150여 개에서 1500여 개에 달한다.

15일부터 전 은행이 동시 시행하면 월평균 300만 건의 스팸문자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 문자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은행은 사칭·사기 문자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IT·보안기업은 자사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윤석현 “DLF 제재심 결과 존중할 것”

“결과 따라 추가회의 개최 검토”

윤석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열리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16일 진행되는 제재심에 대해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며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30일 추가 회의 개최 여부는) 16일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틀 뒤 열리는 제재심의 핵심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사전 통보된 중징계 안이 확정될지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내부통제 문제로 규정하고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

만, 우리·KEB하나은행은 제재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와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직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거기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르면 월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모든 걸 끝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부원장을 한 명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관측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선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원장 인사까지 포함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진옥동 신한은행장, 영업점 디자인도 ‘고객중심’

1인 의자 도입 등 고덕점 첫 적용

‘고객중심’ 경영 전략을 강조한 진옥동<사진> 신한은행장이 영업점 디자인을 싹 바꾼다. 신년사를 통해 평가체계를 고객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조직 전반에 고객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중심으로 개편한 새로운 ‘점포 디자인 표준안’ 개발을 완료하고 13일 이전 개점한 고덕동지점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진 행장의 ‘고객중심’ 경영 전략에 발맞춰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점포 디자인 개발을 진행해 왔다. 신한은행은 다양한 고객들에 대

한 리서치를 통해 고객들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편안함, 신뢰감 같은 정서적 만족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새로운 ‘점포 디자인 표준안’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적으로 반영시켰다.

새롭게 적용된 신한은행 점포 디자인 표준안의 주요 특징은 △인테리어 색상 변화, 1인용 의자 도입 등을 통해 편안한 객장 분위기 조성 △창구 파티션 높이, 모양 변화로 고객 프라이버시 강화 △순번표시 화면 위치를 고객 눈높이로 조정 △정보 전달을 위한 대형 전광판, 디지털 포스터 등 디지털 트렌드 반영 등이다.

점포 디자인 표준안은 앞으로 신규·이전 개점, 리모델링 등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신한은행 영업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QR 넘어 안면인식 결제... 세계정복 꿈꾸는 '페이 굴기'

㉔ 대륙의 결제시장은 '혁신 진행형'

중국의 간편결제 시장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동시에 중국은 현재 모바일 중심 간편결제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야말로 '페이 굴기(Pay 崛起)'를 준비하는 셈이다. 중국은 이제 자국 내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간편결제와 안면인식 결제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페이는 걸음마 단계다. 중국과 한국의 간편결제 현황을 비교하고 앞으로 페이 사업을 전망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중국 간편결제 시장. 해외까지 넘본다 = 지난달 20일, 서울 명동 신세계 면세점은 연말을 맞아 한국 관광과 쇼핑을 즐기기 위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과 중국 간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이른바 '한한령'이 내려졌지만, 면세점은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행렬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유커의 국내 결제 편의를 위해 국내 주요 면세점은 수년 전부터 유커 유치를 위해 중국 주요 간편결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모두 국내 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모두 결제가 가능했다. 특히,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은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결제 편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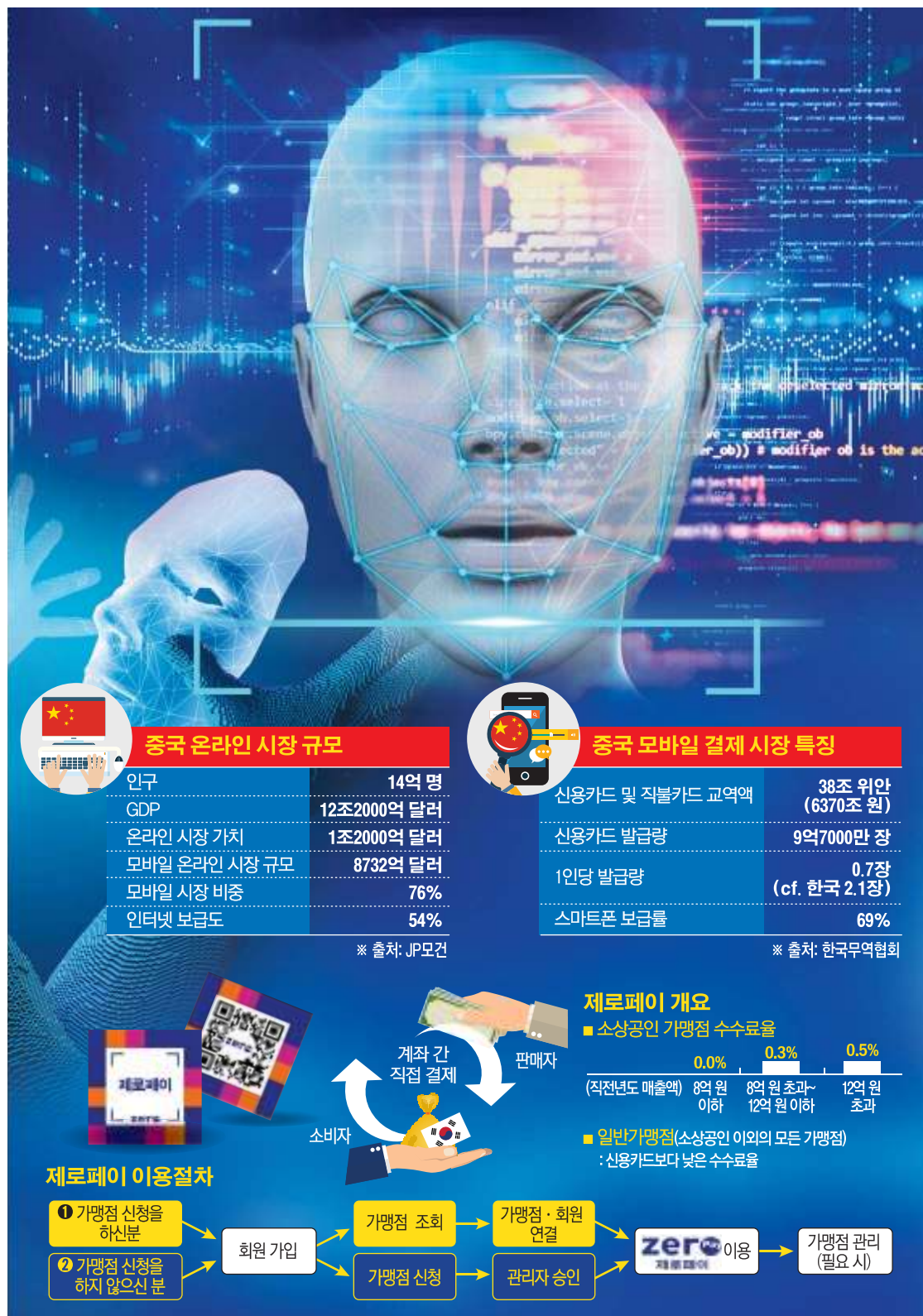
中 온라인거래, 전체 소매 지출 23% 불과
인터넷 보급률도 55%... 성장 여력 커
안면인식 결제 등 국내 면세점 제휴 확대

유니온페이는 2018년 일찌감치 신세계 면세점과 모바일 QR결제 제휴를 맺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면세점 내부에 유니온페이 프리미엄 라운지를 설치해 특별 등급 고객에게 라운지를 제공하고 짐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이날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을 찾은 20대 여성 중국인 관광객 샤오한(가명) 씨는 유니온페이 QR결제를 활용해 화장품을 구매했다. 앞서 취재진이 중국 현지에서 QR결제를 하듯이 유니온페이 앱을 통해 바로 결제할 수 있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결제 방식 차이에 대해 "중국의 결제 방식이 한국보다 다양하다"며 "중국은 QR결제와 카드NFC결제 등이 많이 퍼져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지갑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결제를 선호한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큰 규모의 가맹점뿐만 아니라 작은 가맹점에서도 모바일 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면세점은 모바일 간편결제에 이어 안면인식 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롯데 면세점은 알리페이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인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를 약 10여 곳의 매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신세계 면세점도 위챗페이와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처럼 중국의 간편결제 시장 확대는 중국 소비시장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한다.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



'폭풍성장' 이끈 편리·범용성

넓은 국토 탓 전국 유선 결제망 구축 난항
빅데이터 활용 무선 QR결제 서비스 제공
수수료 0% 앞세워 보급·수익성 확대 견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간편결제 시장 성장을 북돋아 주는 형국이다. 미국 투자사 JP모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조20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녔으며 2021년까지 연간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 온라인 상거래 규모는 전체 소매 지출의 23%에 불과하며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약 55%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중국 온라인 쇼핑은 자국 내 소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성장

하고 있다. 중국 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42%가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었다.

◇중국 간편결제, '편리성과 범용성' 무기로 성장... 한국은 '걸음마' 단계 = 중국은 곧장 모바일 결제 단계로 진입한 만큼 한국과 직접 비교가 힘들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는 9억7000만 장으로 1인당 0.7장 수준이다. 한국이 1인당 2.1장의 카드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이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간편하고 신용카드는 상대적으로 발급 조건이 까다로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복제와 위조지폐 가능성이 큰 것과 높은 수수료도 부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의 특성상 전국 규모의 유선 결제망 구축이 힘들다. 반면 QR결제 방식은 무선 기반으로 특정 단말기 없이 결제할 수 있어 더 편리하다. 또 보급 단계에서 0% 수준의 수수료를 앞세워 소비자와 가맹점 주 선택을 유도했고 다양한 신용기반 서비스와 빅데

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주효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이런 전략으로 초반 보급과 이후 수익성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결제는 습관의 문제... 제로페이는 결제 '인프라'" = 한국의 간편결제는 중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업계는 한국의 간편결제 시장이 중국보다 5년 뒤쳐져 있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5년 뒤에는 중국처럼 간편결제가 보급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페이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 들었고, 공공분야에서는 서울시가 '제로페이'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투데이는 김홍찬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장을 만나 제로페이 미래 방향성과 전망을 물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청 무교동청사에서 만난 김 반장은 제로페이의 가장 큰 목표가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로페이 시작의 가장 큰 이유는 산업육성 측면과 소상공인 보호 두 가지 이유"라며 "민간에 (인프라 구축을) 맡기면 이 영역이 클 수 없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가맹점과 결제 생태계를 갖춰야 하는데 제로페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제로페이의 역할이 철저히 민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로페이는 '가맹점은 공공이

국내 결제시장 전망

오랫동안 신용카드 기반 결제방식 보편화
현금 중심 모바일결제가 주축되기 어려워
개인 맞춤 금융서비스 위주 확대 가능성

설치할 테니, 민간 참여자는 가맹점을 공유하는 형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다만, 민간 참여자는 우리가 제시한 수수료 체계에 동의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제 인프라 구축이 통신사업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통신사업 인프라는 국가에서 깔고 이를 활용한 영업을 다수 민간에 제공했다더라면 지금과 같은 독과점 체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로페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반장은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기존 밴(VAN) 중심의 유선결제 체계는 확장이 불가능하지만, 무선 중심의 스마트폰은 가능하다"며 "결제를 매개로 한 부가가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간편결제 시장 성장 방향은 중국과 동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미 신용카드 기반 결제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현금 중심의 모바일결제 주축이 되긴 어렵다. 이에 기존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모두 모바일 신용결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모바일 음식 및 상품 배달과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불 결제 시스템에 모바일 신용결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확장이 주효하다. 또 모바일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수익을 창출할 전망이다.

중국특별취재팀(상하이)=김병근 기자 nova@
정용욱 기자 dragon@·곽진산 기자 jinsan@

"고객 불편사항 해결하며 서비스 질적 변화 이끌었죠"

'알리페이'가 밝힌 성장 비결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 단순결제 플랫폼에서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알리페이 사용자는 9억 명에 달한다. 알리페이 자체 조사 결과 사용자 10명 중 8명은 알리페이 앱에서 세 가지 이상 서비스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다. 10명 중 3명은 다섯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중이다. 알리페이는 단순 결제를 넘어 종합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서비스가 확장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알리페이의 '고객 최우선 주의'가 주효했다.

"관리비 납입·공유 자전거·택시 호출 등 니즈 분석 통해 100여개 서비스 제공"

선리(shen le) 알리페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항상 고객의 니즈를 살핀 결과 페이 서비스에서 관리비 납입, 공유 자전거 사용, 택시 부르기 등의 다른 생활 서비스가 확장할 수 있었다"며 "현재 100가지가 넘는 서비스가 있고, 대부분 알리페이 플랫폼에서 제3자가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페이의 혁신적인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 사항에서 시작됐다. 선리 담당은 "알리페이가 트위터

에서 일주일간 진행한 비공식 설문조사를 보면 1240명의 응답자 중 220명, 약 18%가 중국을 여행할 때 가장 불편했던 것이 현지인들처럼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들도 중국에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투어패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알리페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 투어패스 시스템을 출시했다. 실제로 취재팀은 투어패스를 활용해 중국 현지에서 모든 결제를 알리페이로 사용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간편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선리 담당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업장에서는 담보 부족, 신용 평가, 대출 비용 등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며 "알리페이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 모델을 시도했고, 그 결과 사람의 개입은 전혀 없이 모바일에서 신청부터 승인과 대출까지 전 과정이 3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금융 서비스 전파를 가능케 해준 기술 혁신을 지원해 준 중국 당국에 특히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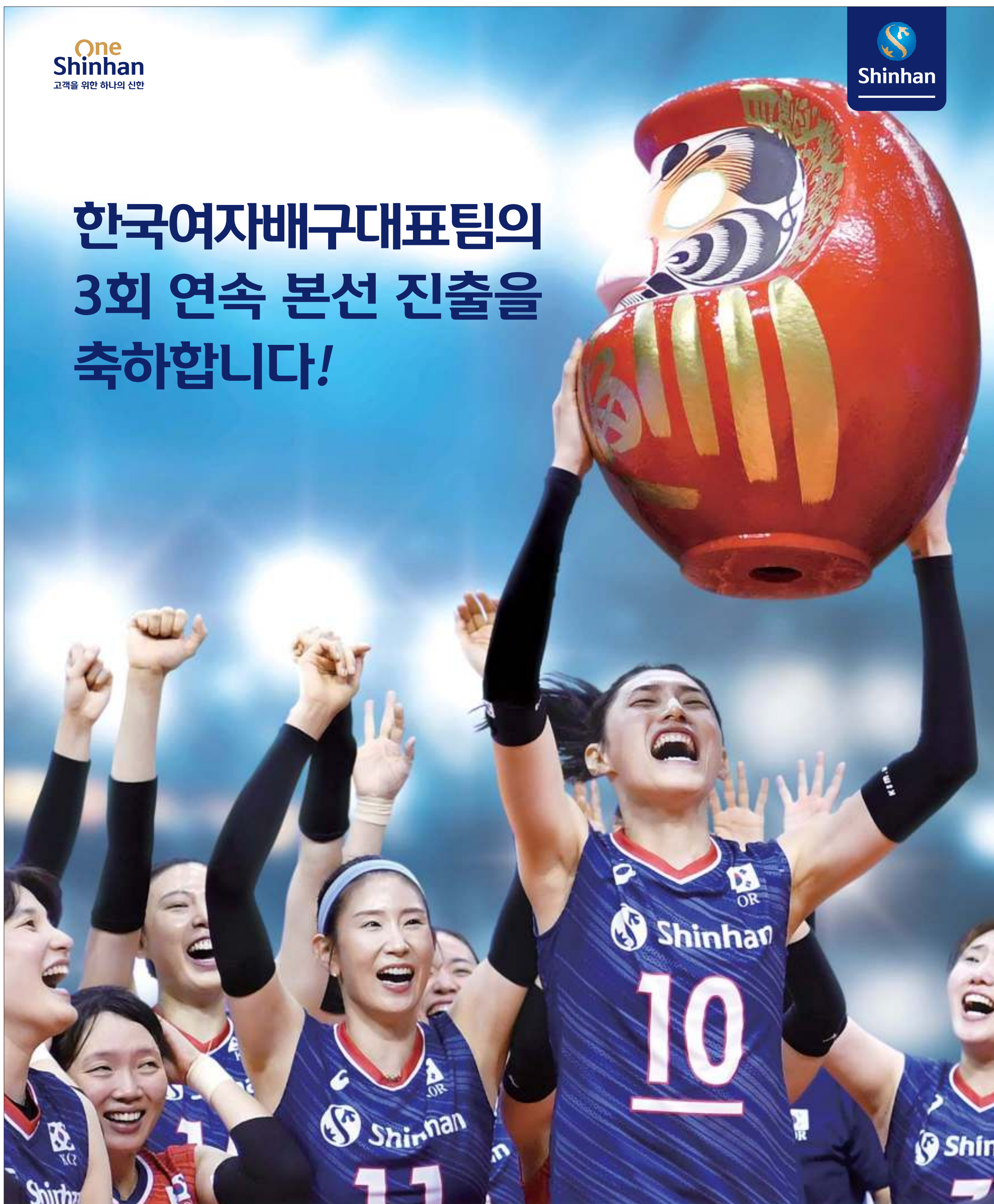
카카오페이의와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모 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 2대 주주로 있다. 선리 담당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혁신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특별취재팀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의 3회 연속 본선 진출을 축하합니다!



아시아 제패의 감동을 넘어 3회 연속 더 큰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의 불굴의 의지와 열정.
일등을 넘어 일류를 향해 도약하는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배구대표팀 공식 후원사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티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SI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2025년까지 전기차 11종 출시… 기아차 ‘플랜 S’ 시동

박한우 사장 중장기 전략 밝혀
‘전기차 아키텍처’ 개발 도입
충전소·정비소·편의시설 갖춘
글로벌 모빌리티 허브 구축도

“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브랜드로 탈바꿈하겠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14일 ‘CEO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에서 향후 6년간 25조원을 투자하고 영업이익률 6%, 자기자본이익률(ROE) 10.6%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중장기 전략인 ‘플랜 S’의 핵심이다. S는 ‘Shift(전환)’를 뜻한다. 기아차는 ‘전기차 및 모빌리티 솔루션’ 2대 미래 사업에서 △전기차 대중화 선도 △전기차·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 및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기아차는 2021년 첫 번째 전기차 전용 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승용, SUV, MPV(다목적차량) 등에 걸쳐 신규 전기차 모델을 투입, 2025년에 총 11종의

기아자동차 플랜S 재무적 투자 전략 *중국 제외

수익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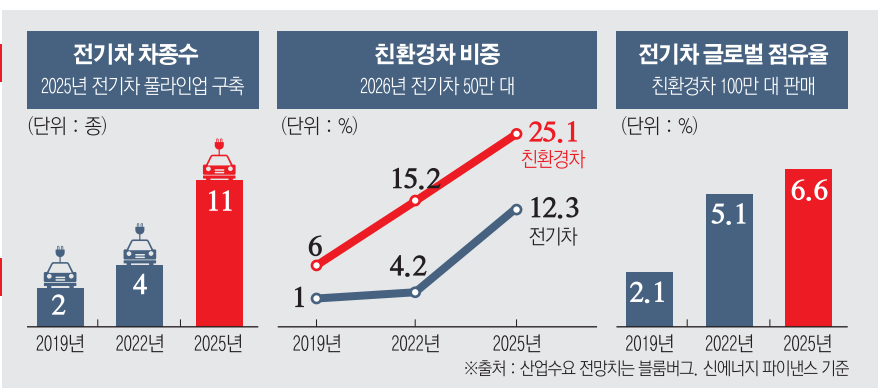
- 볼륨 SUV 중심 신차 출시 효과적 활용
- 인도 공략 가속화, 2022년 30만 대 체제 구축
- 중국시장 강도 높은 체질 개선 통해 ‘내실’ 강화
- 신흥시장 중심 CKD 사업 확대, 2023년 30만 대 구축
- 신흥시장 내연기관 신차 판매 확대
- 원가 구조 혁신으로 전기차 수익성 확보

주주가치 극대화

- 단기** 배당성향 25~30% 지속 유지
- 중장기** 수익성 정상화 이후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검토

자기자본이익률(ROE) 글로벌 상위 수준인 10%대 달성

전기차 폴라인업을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사용자 경험, 50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거리, 20분 이내 초고속 충전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기차 기술력이 집약될 전망이다. 특히 혁신적인 ‘전기차 아키텍처(architecture·차량 기본 골격)’ 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전기차 판매 방식의 혁신도 모색한다. 고객들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구동 모델,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대여·리스 프로그램과 중고 배터리 관련 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아차는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해 지역 사업자 등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차량 정비 센터,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모빌리티 허브(Hub)’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빌리티 허브를 통해 확보된 도시 거점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로보택시, 수요응답형(on-demand) 로보셔틀 등을 운영한다. 기아차는 2018년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그랩(Grab)’에, 지난해 3월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올라

(Ola)’에 투자하는 등 국내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에 한층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현지 최대 에너지 기업인 ‘렘솔(Repsol)’과 합작법인을 설립, ‘위블(Wible)’ 브랜드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는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차량을 단순히 용도 변경하는 수준에서 탈피해 기업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PBV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산업 수요의 약 5% 수준인 운송, 물류, 유통 등 기업 고객들이, 전자상거래, 차량 공유 등이 확산함에 따라

2030년에는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차량 공유 서비스 전용차, 저장 물류차, 냉장·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신선식품 배송차 등 타깃 고객 전용 PBV를 개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하는 시점에는 초소형 무인 배송차, 로보택시 등 통합 모듈 방식의 ‘스케이트보드(skate-board) 플랫폼’ 기술 등이 적용된 전기차·자율주행 기반 맞춤형 PBV로 사업 모델을 확대한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구동 모터를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에 탑재하고, 그 위에 용도에 맞게 자유자재로 차체를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뜻한다. 영업이익률 6% 달성을 위해서는 인도 시장 공략 가속화는 물론 아태, 아중동,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의 CKD(Completely Knock Down : 반제품 조립) 사업도 현재 8만 대 수준에서 2023년 30만 대 체제로 확대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전자, 美 5G 망설계 기업 ‘텔레월드’ 인수

“북미시장 공략…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20% 이룬다”

삼성전자가 미국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전문기업을 인수하고 현지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해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5G·4G LTE 망설계·최적화 전문기업 텔레월드 솔루션즈(TeleWorld Solutions)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2년 설립된 텔레월드 솔루션즈는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업자, 케이블 방송사 등에 망설계·최적화·필드테스트 등 전문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수는 최근 미국 전역으로 확

대되는 5G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5G가 상용화됐다. 지역 확대에 따른 5G 망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히 600~800MHz 저대역, 2.5~4.9GHz 중대역, 24~39GHz 초고주파수대역 등 이동통신에 활용되는 주파수와 기지국이 다양해지고, 망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결국 효율적인 망 설계와 최적화 기술 확보가 핵심 역량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텔레월드 솔루션즈는 대량의 필드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검증분석 자동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실내외 기지국 최적 위치 선정, 무선 신호 간섭원 추출, 기지국 셀(Cell) 설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대비 50%에서 최대 90%까지 절감해 준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11%까지 끌어 올렸다. 특히 5G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5G 장비 시장 1위 사업자인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견제로 주춤하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가 빠르게 추격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 5G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23%로 화웨이(3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송영록 기자 syr@

LG전자, 음성인식 車인포테인먼트 만든다

美 세렌스와 개발 업무협약
네비게이션 등 음성인식 지원

LG전자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차량용 음성인식 솔루션업체인 세렌스(Cerence)와 차량용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과 세렌스 CEO 산자이 다완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한 웹OS 오토 기반의 IVI(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한다. 고객이 차 안에서 네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등 각종 기능을 음성인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웹OS 오토는 리눅스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다. 커넥티드카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스템온칩(SoC)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웹OS 오토의 개방형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LG전자가 세렌스와 손을 잡은 것은 음



박일평(왼쪽) LG전자 CTO와 산자이 다완 세렌스 CEO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성 인식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렌스의 모회사인 뉘앙스(Nuance)는 차량용 음성인식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억 대 이상의 차량에 세렌스의 솔루션을 적용했다. 박 사장은 “세렌스와 협업해 커넥티드카 개발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웹OS 오토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자동차 제조사나 고객에게 수준 높은 차량용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텔루라이드 ‘2020 북미 SUV’ 첫 선정

기아차 텔루라이드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TCF센터에서 열린 ‘2020 북미 올해의 차(NACTOY)’ 시상식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 부문(이하 SUV 부문)에 선정됐다. 텔루라이드는 SUV 부문 최종 선정에서 현대차 팰리세이드, 링컨 에비에이터와 경합을 벌였다. 기아차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티어링이 2018년 승용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일본 혼다 어코드에 밀렸다. 앞서 현대차 1세대 제네시스(BH)와 아반떼MD, 제네시스 G70(지 세븐티), 코나 등이 선정된 바는 있다. 북미 올해의 차 주최 측은 “신사양과 성능을 겸비한 SUV로, 럭셔리 수준의 디자인과 프리미엄 경험을 선사한다”라며 “기존 SUV 브랜드들이 긴장해야 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텔루라이드 수상으로 한국차는 작년 2개 부문(승용 부문 제네시스 G70, SUV 부문 현대 코나)에 이어 2년 연속 ‘북미 올해의 차’ 수상 기록을 세웠다. 북미 올해의 차 조직위원회는 1994년



대한상의 “설에는 우리 농식품 선물을”

농식품부와 소비 확대 캠페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설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상의와 농식품부는 ‘우수 농식품 모음집’과 공동명의 홍보 포스터 등을 지역상의 73곳과 회원기업에 배포한다. 모음집에는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농식품·식품명인 제품 등 276개 품목이 담겨 있다. 13~14일에는 상의 회관에 ‘우리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해 대한상의와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주요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농식품 구매에 동참한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와 농식품부가 함께하는 명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농식품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트럭·버스 타이어 싸고 편하게 사세요”

한국타이어, 구매~사후 지원 원스톱 ‘TBX 멤버십 앱’ 오픈

한국타이어가 트럭·버스용 타이어 구매 고객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BX 멤버십 앱’을 14일 선보였다. ‘TBX 멤버십 앱’은 한국타이어의 트럭·버스 전문매장인 TBX(트럭 버스 익스프레스)의 멤버십 서비스로 타이어 구매부터 사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무이자 할부와 무상보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먼저 TBX 멤버십 서비스 지정점에서 트럭·버스용 타이어를 구매하면 1차 포인트가 적립된다. 무상보증서도 앱에 포함돼 있다. 타이어 규격에 따라 3000~5000원이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다음번 타이어

구매 때 5000원부터 사용할 수 있다. 멤버십 서비스 지정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매장 검색 기능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이밖에 멤버십 회원고객 대상 무이자 분할 납부 서비스 및 제휴 할인 쿠폰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나이가 앱을 통해 간편 매장예약 서비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오는 3월 31일까지 ‘TBX 멤버십 앱’ 신규가입 고객 대상으로 1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BX 멤버십’을 검색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접을까 찍을까... 취향저격 ‘갤럭시 신상 투톱’ 출격

내달 11일 ‘삼성 갤럭시 언팩’

다음 달 ‘갤럭시 vs 갤럭시’ 대전이 펼쳐진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과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동시에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내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이 열린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에 보낸 초청장을 통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가칭)’과 일반 스마트폰 ‘갤럭시 S20’ 2가지 제품을 동시에 공개할 것을 암시했다.

초청장 영상에는 갤럭시(Galaxy) 철자에서 알파벳 a대신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직사각형 모양은 갤럭시 S시리즈 신제품을 암시한다. 정사각형은 폴더블폰 신제품이 반으로 접힌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갤럭시 Z 플립은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폴드’에 이어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내놓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제품처럼 좌우로 여닫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접는 ‘클램셸’(clamshell·조개 껍데기) 타입이라는 점이다.

접힌 모습은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전면 6.7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다. 왼쪽 모서리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이에는 시간과 날짜, 배터리 용량이 표시된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는 듀얼 카메라 렌즈가 장착돼 있다.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은 제품 우측에, 하단에는 USB-C 포트와 스피커가

작고 대화면 원한다면 ‘Z 플립’

위아래로 접는 두 번째 폴더블폰 접으면 1.14인치·펴면 6.7인치
폴드보다 가격 낮은 100만원대

사진 촬영 좋아한다면 ‘S20’

전면 2개·후면 4개 카메라 장착
1억 화소·광학 5배 등 지원
5000mAh 배터리로 5G 최적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폰을 펼치면 6.7인치 화면이 나타나고, 화면 중앙 상단에 카메라를 장착한 판치를 디자인이 적용됐다.

특히, 이 제품은 투명폴리이미드(CPI) 대신 UTG(Ultra Thin Glass·초박막강화유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UTG의 곡률은 1.5R로 갤럭시 폴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100만 원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기존 갤럭시 폴드(239만8000원)에 비해 가격 접근성이 높아 새로운 폼 팩터(form factor)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선택하기에 좋다.

갤럭시 Z 플립은 스마트폰의 화면이 접점 커지는 추세 속에서 작은 크기 대화면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마트폰은 베젤이 얇아지고,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졌다. 기존 스마트폰과 패블릿(Phablet)의 크기 차이가 불명확할 정도다.

삼성 스마트폰 비교

	갤럭시 폴드	갤럭시 Z 플립(가칭)	갤럭시 S20
디스플레이	메인 : 7.3인치 커버 : 4.6인치	메인 : 6.7인치 커버 : 1.14인치	6.2인치, 6.7인치, 6.9인치
프로세서	퀄컴 스냅드래곤 865	스냅드래곤 865	스냅드래곤 865/엑시노스990
메모리	12GB 램, 512GB 내장메모리	12GB 램	12GB 램, 256GB 내장메모리
카메라	커버 : 1000만 화소(F2.2) 후면: 4개 전면: 2개	후면 : 2개 전면 : 1개	후면 : 4개 전면 : 2개
배터리	4380mAh	4000mAh	5000mAh
가격	239만8000원	100만 원대 중후반	92만~127만 원
특징	투명 폴리이미드필름(CPI)	초박막유리(UTG)클램셸 타입	45W급 고속 충전, 4800만 화소 망원렌즈, 1억 화소 카메라, 광학 5배 줌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는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팩트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10을 출시하면서 휴대성을 강화한 6.3인치 모델도 선보였는데,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었다.

갤럭시 S20은 갤럭시 S10의 후속작품이다. 그동안 갤럭시 S시리즈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순서대로 뒤에 번호를 붙였다. 그러나 올해는 2020년을 맞아 시리즈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갤럭시 S20 시리즈는 6.2인치 갤럭시

S20 △6.7인치 갤럭시 S20 플러스 △6.9인치 갤럭시 S20 울트라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에 따라 저장메모리는 128GB, 256GB, 512GB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울트라 모델은 SD카드 슬롯을 통해 최대 1TB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S20의 가장 큰 특징은 막강한 카메라다. 후면 4개, 전면 2개 등 총 6개의 카메라가 장착되며 1억 화소 카메라, 4800만 화소 망원렌즈, 광학 5배 등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5W급 고속 충전과 5000mAh 배터리 지원으로 최적

화된 5G 환경을 구현한다.

갤럭시 S20 시리즈의 가격은 92만 원부터 127만 원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갤럭시 Z 플립과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 막강한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환경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S20 시리즈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대화면으로 태블릿에 버금가는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다. 갤럭시 폴드의 디스플레이는 7.3인치로 내달 공개되는 갤럭시 Z 플립(6.7인치)보다 더 넓은 화면을 구현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쉐보레의 SUV 트레일블레이저. 왼쪽부터 기본 모델, 액티브 모델, RS 모델. 사진제공 한국지엠

한국지엠, 신형 SUV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본·RS·액티브 3가지 모델

한국지엠(GM)이 16일 새롭게 선보이는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일반 모델과 함께 RS 모델, 액티브(ACTIV) 모델 등 세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된다.

쉐보레는 지난해 LA 오토쇼에서 세 모델을 선보였다. 기본 모델은 새로운 디자인의 듀얼포트 그릴과 날카로운 주간주행등으로 대표되는 쉐보레의 최신 패밀리룩을 갖춰 역동적인 인상을 준다.

‘랠리 스포츠(Rally Sports)’의 준말인 RS 모델은 크롬 라이데이터 그릴과 블랙 보타이 등 스포츠카와 유사한 외장 디자인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실내에도 전용 D 컷 스티어링 휠과 붉은 색 스티치 장식 등이 적용됐다.

반면 ACTIV 모델은 정통 오프로더를 연상시키는 모델로 디자인됐다. 올 터레인 타이어나 전면 X자 형상의 범퍼 디자인으로 SUV 본연의 매력에 집중했고, 실내에는 브라운 인테리어 컬러를 넣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세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된 이유는 SUV 특유의 젊고 역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SUV의 특성상 소비자의 구매 목적과 생활 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쉐보레는 기본모델과 함께 도심에

서의 온로드 주행에 집중한 RS 모델과 오프로드를 비롯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ACTIV 모델을 함께 준비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세그먼트 설정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SUV 이쿼녹스 사이에 있는 트레일블레이저는 기존 소형 SUV를 능가하는 차체 크기와 고성능·고효율 터보엔진을 얹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시장에서 트레일블레이저는 GM의 라이트사이징 기술을 적용한 1.2리터 터보엔진과 1.35리터 터보엔진을 얹었다. 이 엔진은 뛰어난 효율은 물론, 2리터 엔진에 버금가는 출력과 토크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출시에 따라 쉐보레의 RV 라인업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쉐보레는 전체 차종의 60%를 SUV로 채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랙스와 이쿼녹스뿐이던 RV 라인업도 지난해 출시한 콜로라도, 트래버스에 트레일블레이저까지 더하면 총 5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지엠의 수출에도 활력을 줄 예정이다. 국내에서 개발해 부평 1공장에서 생산될 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이끌 핵심 수출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h 휴온스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고객센터 : 1800-4414

KT, 삼성서울병원과 세계 첫 ‘5G 스마트병원’ 구축

5G 디지털 병리 진단 통해 신속·정확한 분석 가능
고화질 수술 영상 실시간 공유... 강의실서도 교육
자율주행 운반 로봇으로 비품 배달... 업무 효율화

KT는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을 위한 혁신적 5G 의료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KT와 삼성서울병원이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을 위해 양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세계 최초로 의료 업무에 5G를 적용해 신속한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수행한 것이다.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을 위해 양사는 △5G 디지털 병리 진단 △5G 양성자 치료정보 조회 △5G 수술 지도 △병실 내 AI 기반 스마트 케어 기버(Smart Care Giver) 구축 △수술실 내 자율주행 로봇 등의 과제를 개발해 검증 완료했다..

이를 위해 KT는 삼성서울병원에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술실과 양성자 치료실 등에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시범 운영했다. 개인 의료정보를 다루는 병원의 특성상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이 가능한 보안성이 높은 ‘기업전용 5G’는 필수

적이다.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스마트한 환자 케어 서비스 개발과 5G 기반 의료행위 혁신, 병원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5G 서비스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5G로 병원 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진단’=5G 디지털 병리 분석은 세계 최초로 5G를 활용해 실제 의료 업무를 혁신한 사례다. 기존의 병리 진단은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을 병리와 교수가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술실 옆 담당 병리 교수가 분석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수가 분석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수가 분석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수가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5G 디지털 병리 진단은 기존 방식보다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병리와 교수가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병리 분석이 가능해졌다. 수술 중 발생하는 병리 데이터는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중요한데, 초고속, 초저지



삼성서울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5G 싱크캠을 장착하고 수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연 특성을 가진 5G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 병리와 사무실에서도 장당 4GB 수준의 고 용량 병리 데이터 조회가 가능해져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

5G 양성자 치료정보 조회는 의료진이 CT나 MRI등의 양성자 치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기존에는 파일을 다운받아 교수 사무실과 양성자 센터 간 1km 거리를 이동해야 했는데, 5G를 통해 병원 내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환자를 더 빠르게 진료할 수 있게 된 서비스다.

◇수술방 벗어나 교육장에서 수술 지도·교육=기존 의과대학 학생과 수습 의료진의 수술 현장 교육 진행 시 수술 집도의와 지원 간호진, 수술 장비 등이 복잡하게 위치한 공간 문제로 인해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교수진들의 고민이었다. KT는 ‘5G 수술 지도’를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5G

를 이용한 싱크캠으로 수술 중인 교수 시점 영상과 음성을 고품질로 실시간 제공해 한정적인 수술실에서 벗어나 많은 수술 의료진이 모인 강의실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은 수술 의료진에 대한 교육효과가 향상돼, 환자를 위한 전문 수술 역량의 대량 확보가 가능해졌다.

양사는 이번 검증에서 그치지 않고 실시간 수술 교육에 AR과 VR 기술을 접목한 5G 의료기술을 고도화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수술 교육 개발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수술실 5G 자율주행 운반 로봇은 수술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개발됐다. 수술 시에는 감염물이나 의료폐기물 등이 반복적으로 대량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5G 자율주행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비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한 의료 지원서비스다.

특히 감염된 물품을 사람이 옮기다 접촉적인 접촉 등으로 발생하는 2, 3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족한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의료 업무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5G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이러한 로봇이나 단말이 많이 연결되어도 끊김이나 지연이 최소화된다.

이재훈 기자 yes@

넥슨, 올 첫 신작 ‘카운터사이드’ 내달 4일 출시

모바일게임 장르 다각화 시동

넥슨이 새해 첫 모바일 게임으로 판타지 RPG를 선보인다. 올해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 다양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넥슨은 스튜디오비사이드가 개발한 신작 모바일 ‘카운터사이드’의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서비스 일정을 공개했다. 카운터사이드는 오는 2월 4일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미디어 쇼케이스에는 게임을 개발한 류금태 스튜디오비사이드 대표와 박상연 디렉터가 무대에 올라 한국을 대표하는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을 만들겠다는 개발 포부를 밝혔다.

류금태 대표는 “어반판타지라는 장르에서 미소녀 뿐만 아니라 메카닉 밀리터리를 소재로 사용해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게임을 소개했다.



류금태 스튜디오비사이드 대표가 카운터사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넥슨

카운터사이드는 지난 8월 프리미엄 테스트 이후 유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전투 플레이’, ‘채용 시스템’ 등 30종 이상의 수정 사항들을 개선했다. 이후에도 유저들의 추가 요청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상연 디렉터는 카운터사이드만의 다양한 콘텐츠도 소개했다. 30만 자 이상의 텍스트와 50장 이상의 일러스트로 구성된

‘메인 스트림’, ‘외전’ 등 스토리 콘텐츠와 현실세계와 이면세계를 넘나들며 미션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카운터사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한다. 특히 게임 출시 후에는 유저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하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넥슨은 카운터사이드를 필두로 올 해 장르 다각화에 나선다. ‘시노엘리스’와 ‘바람의나라:연’, ‘카트라이더:드림프트’, ‘데일즈위버M’ 등 RPG 외에도 캐주얼·레이싱 등 다양한 신작으로 통해 유저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류금태 대표는 “출시 전부터 많은 유저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에 집중했다”며 “지속적으로 유저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학습지 대신 ‘스마트 홈러닝’ 웅진씽크빅·비상교육 도전장

초등학생 홈스쿨링 사업에서 학습지 대신 ‘스마트 홈러닝’이 대세로 바뀔 전망이다. 업계 최초로 초등 홈러닝을 시작한 아이스크림 에듀의 ‘홈런’을 시작으로 천재교육 ‘밀크티’가 선발 주자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웅진씽크빅과 교원, 대교 등 기존 대형 교육업체까지 가세하며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14일 교육업체에 따르면 업계 1위 아이스크림에듀는 최근 스마트 홈러



웅진씽크빅의 홈러닝 서비스 ‘웅진스마트올’.

는 스마트러닝을 선보였다. 전 과목 흐름과 뼈대를 잡아주는 콘셉트로, 한 장의 그림을 통해 직관적 이해를 유도하는 학습법이 특징이다. 메가스터디는 초등학생 대상 인터넷 강의 서비스인 ‘엘리하이’를 론칭했다. 학교공부는 물론 영·수 심화학습과 영재교육원을 비롯한 진로·진학대

비까지 ‘상위 1%’ 학습을 서비스한다. 교원은 ‘REDPEN

웅진씽크빅 ‘스마트올’ 출시 한달 만에 유료회원 1만 돌파
비상교육 ‘개뽀노트’ 메가스터디 ‘엘리하이’ 등 경쟁 치열
시장 1위 아이스크림에듀는 ‘뉴홈런’ 서비스 대대적 개편

닝 프로그램인 홈런 서비스를 ‘뉴홈런’으로 탈바꿈 시켰다. 뉴홈런은 디자인이 직관적으로 개편돼 콘텐츠의 집중도를 높이고, 수준별로 집중 학습을 할 수 있는 코스와 홈런AI생활기록부 등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했다. 2위 주자인 천재교육 밀크티도 ‘요즘 애들의 요즘 공부법’이라는 전략으로 점유율 수성에 주력하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디지털 전과’를 캐치프레이즈를 한 ‘웅진 스마트올’을 출시해 한달 만에 유료회원 1만명 을 돌파했다. 웅진스마트올은 40년간 축적된 웅진씽크빅의 학습 콘텐츠와 교육 노하우, 500억건에 이르는 학습 빅데이터를 집약한 AI 학습 플랫폼을 자랑한다. 비상교육은 초등 스마트학습 브랜드 와이즈캠프에서 ‘개뽀노트’라

코딩’을 론칭하며 전집연계형 코딩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점유율 상승을 노리고 있다. ‘REDPEN 코딩’은 출시 한달 만에 판매 1만3000건을 달성하는 등 매출액 기준으로 150억 원에 달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YBM 넷은 신개념 영어교육 학습교구 ‘머핀 잉글리시’를 정기 구독할 수 있는 ‘머핀 홈스쿨링’ 서비스를 선보였다. 머핀 잉글리시는 영유아나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만들었다. 눈높이 수학으로 유명한 대교는 독서 홈스쿨링 서비스 ‘대교 상상Kids 북클럽’을 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초등 스마트 시장은 지난 2018년 기준 2500억 원 규모를 형성했고, 연평균 25%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한샘, 모바일 앱 새단장... 최대 50% 할인 행사

추천 서비스 강화·상품 카테고리 세분화... 쇼핑 편의성 높여

종합 홈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온라인 가구 시장 추세에 발맞춰 고객의 모바일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앱 리뉴얼을 진행하고 이를 기념해 1월 한달 간 한샘몰 베스트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한샘몰 앱은 총 10만여 개의 가구와 생활용품 중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쇼핑 경로에 따라 맞춤 상품을 제안하는 ‘상품 추천’ 서비스를 강화했다. 더불어, 모바일 속도를 더욱 높이고 페이지 디자인은 텍스트가 아닌 픽토그램

을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다.

매일 새로운 생활용품을 최저가로 선보이는 ‘끝딜·혜택’ 서비스를 추가했고, 입점 상품 ‘타임특가’를 모바일 메인 화면에 배치해 입점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모바일 쇼핑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했다.

더불어, 다양한 가구를 침실가구, 옷장·수납, 주방가구 등 11개 상품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샘몰은 앱 리뉴얼을 기념해 ‘기간 한정 타임 세일’, ‘고객인정 베스트 셀러’, ‘한샘몰 대표 패키지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14일부터는 통원목 고무나무로 제작한 ‘한샘 로하 4인 식탁세트’, 가족의 취향에 맞게 컬러와 모듈을 선택할 수 있는 ‘샘베딩 베이직 옷장 행거형’ 등을 최대 33%까지 특가 할인으로 선보인다.

‘고객인정 베스트 셀러’에서는 고객들의 큰 사랑을 받은 소파, 식탁, 책장, 조명 등 카테고리 별 대표 상품들을 특별 할인한다.

최영희 기자 che@

GS25 자동결제 편의점... ‘한국형 아마존고’ 경쟁

물건 들고 게이트 빠져나오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계산 인건비 등 유지비 절감 효과 이마트24 이어 두 번째 도입

편의점들이 ‘한국형 아마존고’ 매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을 고르고 따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걸어나가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미래형 점포에 이마트24에 이어 GS25도 뛰어들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BC카드와 ‘스마트로’와 함께 BC카드 본사에 미래형 편의점인 GS25 올지스마트점을 14일 오픈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9월 업계에서 최초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스캐너가 적용된 무인형 점포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선보였다. 이번에는 계산대까지 없애 한층 진일보된 2세대 디지털랜스포메이션 점포를 구현했다.

이 점포는 점원 없이 고객이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입장해 상품을 들고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4대의 딥러닝 스마트카메라가 고객 행동을 인식하고, 매대 별로 장착된 300여 개의 무게 감지 센서는 고객의 소비 행동을 학습해 도난을 방지한다. 스피드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결제 시스템으로 자동 결제해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공한다.

‘한국형 아마존고’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업체는 이마트24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소핑 후 별도 결제 과정 없이 매장을 나오면 자동결제가 되는 ‘저스트 워크 아웃’(Just Walk Out) 기술을 적용한 자동 결제 무인 매장 김포DC점을 오픈했다.

이 매장은 SSG페이 또는 이마트24 앱을 통해 발급된 입장 QR코드를 스캔한 후 매장에 입장한 후 쇼핑할 수 있다. 30여대의 카메라가 고객의 쇼핑 동작을 인식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상품 바코드 스캔이나 결제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매장을 나가면 결제가 진행된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씨유)도 이들과 유사한 무인점포 서비스를 현재 개발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스마트편의점 ‘시그니처’ 콘셉트의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GS리테일이 미래형 편의점인 ‘GS25 올지스마트점’을 14일 오픈했다. 사진제공 GS리테일

편의점 업계가 한국형 아마존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데다 24시간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결제의 불편을 줄여 줄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점원과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언택트(Untact) 소비 트렌드와도 맞아 떨어진다.

또한, 고객 동선을 따라가는 수십대의 카메라가 필요한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넓은 공간에서는 도입이 어렵다는 점도 편의점으로서의 차별화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이마트24의 김포DC점은 14평, GS25 올지스마트점은 6평에 불과하다.

다만, 도시락과 과일 등 신선식품과 원두커피 등 판매가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이들 상품은 마진율이 높아 최근 편의점 업계가 전략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신선식품의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 점원이 자주 들러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무인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GS25 올지스마트점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 위주다. 도시락과 과일 등의 신선식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담배나 술도 없다. 이마트24 김포DC점에서는 도시락과 원두커피, 과일 등을 파는 대신 직원이 상주해 고객 쇼핑을 돕는 형태로 운영된다. 담배는 신분증 확인 후 구매가 가능하지만 주류는 팔지 않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아직은 일종의 테스트 수준”이라며 “기술 검증을 통해 인건비 절감 효과를 비롯해 가맹점의 운영 편의와 효율화를 확인한 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골프웨어 트렌드 ‘블랙·컬러블록·스웨터’ 인기

한세엠케이 ‘PGA TOUR & LPGA 골프웨어’ 분석... 선수 성적이 판매율과 직결

골프웨어 시장에서 지난해 베스트셀러의 키워드는 뭘까.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의 트렌디 퍼포먼스 골프웨어 ‘PGA TOUR & LPGA 골프웨어’ 지난해 제품, 소재, 컬러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골프웨어 트렌드를 이끈 색상은 ‘블랙’, 디자인은 ‘컬러 블록’, 제품군은 ‘스웨터’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키워드의 열풍 뒤에는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골프웨어 컬러는 ‘블랙’이었다. 블랙의 뒤를 이어 화이트, 레드 순으로 판매율이 높았다. 블랙과 화이트는 심플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선사해 매년 사랑받는 컬러로 꼽힌다. 무난한 컬러가 대세인 이유는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구매 비중이 늘어난 결과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어울릴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템과 매치해도 땀이 없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패션업계를 강타한 뉴트로 열풍이 골프웨어에도 영향을 미치며 ‘컬러 블록’ 아이템도 올랐다. 지난 여름 시즌 PGA TOUR & LPGA 골프웨어가 고기능성 원단을 사용해 선보인 ‘라인 배색 티셔츠’는 다채로운 컬러 블록으로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 일상복으로도 손색 없는 모던한 디자인과 메쉬 소재를 사용해 통기성 등 기능성까지 챙겨 지난 시즌 매출을 이끌며 필수템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군은 스웨터였다. 가을부터 봄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는 스웨터는 활용도와 실용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후원 선수들이 다양한 경기 현장에서 입었던



‘PGA TOUR LPGA 골프웨어’ 후원 선수인 고진영(왼쪽) 프로와 이승연 프로.



사진제공 PGA TOUR LPGA 골프웨어

PGA TOUR & LPGA 골프웨어의 ‘라인 배색 라운드 풀오버’가 많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제품을 입은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제품은 99% 판매율을 올리며 완판 아이템으로 등극했다.

이처럼 골프웨어 베스트셀러 트렌드 열풍의 뒤에는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다. 프로 선수들이 많이 착용하는 블랙, 화이트, 레드 컬러는 높은 판매량을 보였고, 지난해 완판을 기록한 제품들 역시 선수 착용 제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선수들이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에서 여전한 성적을 낼 경우 매장 방문을 증가와 함께 해당 제품 판매 급상승세가 이어졌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관계자는 “올해 자사 후원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에 힘입어 선수 착용 제품들의

높은 인기가 트렌드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퍼포먼스 골프웨어 트렌드의 대표 주자이자 시장을 이끌어가는 브랜드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엠케이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지난 2019년 시즌 총 8명의 여성 선수를 후원했다. 그 가운데 4명의 선수가 도합 11승의 쾌거를 올리며 골프웨어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해, 장하나, 임희정, 이승연 프로 등이 경기마다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승리를 부르는 골프웨어’ 주목받았다. 올 월 현재 PGA TOUR & LPGA 골프웨어가 후원하는 선수로 총 12명이 활약 중이다.

박미선 기자 only@

하이트진로, 설 와인 선물세트 출시

5만 원부터 20만 원대까지 다양

하이트진로는 2020년 설을 맞아 와인 선물세트 16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고품격 라인을 비롯해 가성비로 주목 받고 있는 칠레, 아르헨티나 등 전세계 우수 와이너리 제품들로 구성됐다. 가격대는 5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샤또 페이 라 푸르(Chateau Pey La Tour) 선물세트’는 와인 평론지 디켄터 매거진에서 뽑은 ‘보르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인 ‘두르프(Dourthe)’에서 생산된 와인선물세트로, 샤또 페이 라 푸르 리저브 보르도 수페리외와 샤또 페이 라 푸르 보르도 루즈로 이뤄졌다.

‘내추럴 와인 선물세트’는 제라르 베르트랑 나뭇잎에 까베르네 소비뇽과 제라르 베르트랑 나뭇잎에 샤르도네로 구성됐다. ‘제라르 베르트랑 나뭇잎에(Gerard B



ertrand Nature)’는 남프랑스 와인의 명가 ‘제라르 베르트랑’이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자연친화적 컨셉으로 내놓은 와인으로, 포도 재배부터 와인의 병입까지 모든 과정에서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비건(채식주의자) 친화적 와인이다.

이외에도 오스카 시장식의 공식 독점 후원사인인 ‘스털링 빈트너스(Sterling Vintner’s) 세트’도 판매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달콤한 칠레산 체리

홈플러스가 한겨울 칠레산 체리 판매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16~17일 칠레산 체리(800g·팩, 정가 1만2990원)를 신한/삼성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3000원 할인해 9990원에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여름철 수확되는 미국산 체리와 달리 칠레산은 통상 매년 11월부터 수확한다. 일교차 높은 칠레 고산지대에서 자라 단맛과 탄탄한 식감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송파 집순이 주목 “김집사가 김스클럽 장 봐드려요”

이랜드리테일 NC송파점 도입 ‘김집사’ 앱 통해 심부름 서비스

이랜드리테일이 NC송파점에 심부름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NC, 뉴코아, 이천일아울렛, 동아 등 도심형아울렛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생활밀착형 심부름 O2O 애플리케이션 ‘김집사’와 손잡고 NC송파점에 심부름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NC송파점은 15일부터 점포에 김집사

심부름 서비스 존을 설치하고, 인근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달 및 심부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랜드리테일은 NC송파점의 김집사 서비스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고객 반응에 따라 추후 수도권 핵심 점포에 해당 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NC송파점 인근 1.5km 내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 고객은 김집사 앱을 통해 NC송파점의 서비스를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김스클럽 장보기, 쇼핑상품 배송대행, 수선 의류 픽업 서

스, NC 맛집 배달서비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채팅 형태로 심부름을 요청하기 때문에 고객이 NC송파점 관련 심부름 서비스를 다채롭게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해당 서비스가 건당 2000~3000원의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제휴 업체에는 수수료, 광고료 없는 착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 증대뿐 아니라, 입점 업체 상생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미선 기자 only@

“한류 스타처럼 예쁘게…” 화장대 접수한 ‘설화수’ ‘후’

글 쓰는 순서

- ① K-푸드, 글로벌 식탁 메뉴 바꾼다
- ② 세계인의 지갑 여는 K-쇼핑
- ③ **K-뷰티, 전 세계 여심을 홀린다**
- ④ K-패션, 뉴욕·밀라노 런웨이 접수
- ⑤ 글로벌 신약 주권 도전하는 K-바이오

#1.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및 기술 전시회인 'CES 2020' 현장에서 K-뷰티 대표주자인 아모레퍼시픽에 시선이 쏠렸다. 아모레퍼시픽은 CES 2020에서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으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한국의 뷰티 디바이스 경쟁력을 뽐냈다. 이 제품은 얼굴 크기, 피부 특성을 반영해 나만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LED 플렉서블 패치'도 함께 선보이며 전시회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2. 지난해 중국 최대 쇼핑절로 꼽히는 광군제에서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를 제치고 뷰티 카테고리 매출 1위를 기록한 AHC는 티몰 글로벌 내 20만 개 브랜드 중 판매 순위 4위, 티몰 글로벌 뷰티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하며 한국 화장품의 위상을 또 한 번 확인시켰다. AHC는 지난해 6월 열린 알리바바 그룹의 '6.18 쇼핑 페스티벌'에서도 2년 연속 티몰 국제판 한국 뷰티 브랜드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광군제에서는 한국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전체 순위 TOP 10 내 7위에 올랐다.

'K-뷰티'가 국제무대에서 조연에서 주연으로 부상했다. K-POP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아이돌 그룹들이 사용하거나 모델로 활동하는 한국 뷰티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로 확산 중이다. 2000년대 뷰티 한류를 이끌었던 주역이 한국 화장품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뷰티 양강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었다면 2010년대 중반을 넘어 서며 국제무대에서 조명받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도 증가하고 있다.

◇ 'K-뷰티 맞수'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해외에서도 맞불 =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경쟁 무대는 더이상 국내가 아니다.



세계 40여 개국 진출 아모레퍼시픽 올 해외 매출 2兆 목표 LG생건, 亞 급성장… 미사·에이지투웨니스 등 해외서 주목 에스티로더, 닥터자르트 인수… 로레알은 스타일난다 품어

아모레퍼시픽은 40여 개국에 진출해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 마몽드 등 주요 5개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에뛰드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권까지 진출 국가를 넓혔다. 라네즈는 지난해 4월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18개국 800여 개 세포라(Sephora) 매장에 입점하는 쾌거를 거뒀다.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매출 목표는 2조 원이다.

LG생활건강은 '후', '뽀리프'를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 해외법인이 진출한 기존 시장뿐 아니라 현재 61개 국가에 진출했다. LG생활건강은 아시아에서 특히 높은 성장을 거두고 있다. 2018년 기준 화장품의 해외 사업 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하며 사상 처음으로 매

출 1조 원을 넘어섰다.

◇ 해외서도 주목받는 중견 브랜드 = 올리브영, 랄라블라 같은 헬스&뷰티스토어가 화장품 유통을 주도하면서 중견·중소 브랜드의 유통망 확대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는 해'로 꼽히는 브랜드숍도 해외에서는 주목받는 K-뷰티 전도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에이블씨엔씨의 미사는 현재 전 세계 44개국에 16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 홍콩, 중국에서는 단독 매장 외에 헬스&뷰티스토어에 입점하는 이원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사는 지난해 3월 영국, 폴란드의 이커머스에 진출한 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국가까지 진출 국가를 확대했다.

국내 홈쇼핑 히트상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인 애경산업의 'AGE 20's'

(에이지투웨니스)는 이미 브라운관 밖의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애경산업의 해외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후 국내에 진출한 브랜드도 있다. 차바이오페의 '새터데이 스킨(Saturday Skin)'은 2017년 미국 세포라에 첫 론칭한 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15개 유럽 국가의 877개 세포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먼저 이름을 알렸다. 새터데이스킨은 지난해 세포라 한국 1호점에 입점하며 한국에 역진출한 토종 브랜드가 됐다.

'정용진 화장품'으로 불리는 '센텐스(S-CENTENCE)'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필리핀까지 진출 국가를 확대했다. 이마트의 PB 브랜드인 센텐스는 '마트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바꾼 브랜드로 필리핀 유통기업인 '로빈슨스 리테일(Robinsons Retail)'에 1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필리핀 뷰티 전문 온라인몰 'BeautyMNL'에도 입점했다.

◇ K-뷰티 가능성, 글로벌 뷰티 공룡들

도 인정 = 에스티로더, 로레알 등 글로벌 뷰티 공룡 역시 한국 화장품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K-뷰티 브랜드를 인수·합병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가 닥터자르트와 남성 그루밍 브랜드 DTRT(Do The Right Thing)를 소유한 해브앤비를 전격 인수했다.

해브앤비를 인수하며 에스티 로더 측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북미, 영국 시장에서 스킨케어 브랜드를 확장하는 닥터자르트를 인수해 에스티 로더가 스킨케어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닥터자르트의 성공을 자신했다.

K-뷰티 브랜드의 해외인수는 닥터자르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니레버가 2017년 화장품 브랜드 AHC로 유명한 카버코리아를 품었고 이듬해에는 로레알그룹이 스타일난다를 인수했다. 스타일난다는 화장품 브랜드 3CE(쓰리센셉아이즈)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로레알그룹의 인수에 3CE와의 시너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亞 넘어 美·유럽 발 넓히는 K-뷰티… 수출, 세계 8위

中 사드보복 사태 이후 수출국 다변화 '뷰티 본고장' 진출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 65억 달러… 정부, 산업 경쟁력 지원

화장품은 2010년대 들어 수출 효자산업에 등극했다. 2014년 첫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내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흑자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5억 47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2018년 수출액을 가뿐히 넘어섰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5987억 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이상이

다. 한국은 세계 10대 화장품 시장이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전 세계 8위권에 랭크되기도 했다.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124억9000만 달러에 이른다. 수출과 내수를 더할 경우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는 규모는 190억 달러를 상회한다. 전 세계 여성 100명 중 3명이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처럼 화장품이 수출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해 말 정부도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

연도별 한국 화장품 수출 상위 10개국 실적 (단위: 억 달러)

	2016년	2017년	2018년
1위	중국(15.7)	중국(19.3)	중국(28.6)
2위	홍콩(12.4)	홍콩(12.2)	홍콩(13.1)
3위	미국(3.5)	미국(4.5)	미국(5.4)
4위	일본(1.8)	일본(2.3)	일본(3.0)
5위	대만(1.4)	대만(1.5)	베트남(1.7)
6위	태국(1.2)	태국(1.5)	태국(1.7)
7위	싱가포르(0.9)	베트남(1.4)	러시아(1.6)
8위	베트남(0.7)	싱가포르(1.0)	대만(1.6)
9위	말레이시아(0.6)	러시아(1.0)	싱가포르(1.3)
10위	러시아(0.5)	말레이시아(0.7)	말레이시아(0.9)

※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무역협회

은 2022년까지 △화장품 산업 수출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 △글로벌 리딩기업과 강소기업 육성 △맞춤형 화장품 제도 도입으로 신규 일자리 7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 K-뷰티의 수출 텃밭은 여전히 아시아권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사

태 이후 수출국 다변화가 활발해지면서 북미와 유럽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수출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아시아권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3위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러시아는 7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프랑스와 영국으로의 수출도 늘었다. 뷰티 본고장으

로 불리는 프랑스는 한국 화장품 수출 11위 국가로 올해 10위권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다. 영국은 13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화장품 수출 실적에서도 수출국 다변화가 감지된다. 화장품 무역액자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 홍콩, 미국, 일본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았고,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110.9%, 91.0%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조짐이 확인된다.

K-뷰티에 대한 높은 인지도도 정부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로모니터가 지난해 발표한 '2019 뷰티 서베이' 조사 결과 K-뷰티는 조사 대상국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유로모니터에서 뷰티 서베이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별 인지도 조사에서 K-뷰티는 26.8%가 인지한다고 답해 J-뷰티(21.9%), C뷰티(11.6%)보다 높게 조사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골드만삭스 출신에 금수저까지 ‘게임 체인저’ 변신

사모펀드 M&A시대 (明)과 (暗)

③ 리더군의 다양화

“사모펀드(PEF)는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을 자극하죠.” 토종 PEF대표 A씨는 은행에서 가장 잘나가던 뱅커였다. 회사에 남았다라면 임원 자리는 때놓은 당상이었고, 대기업에서도 구애를 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뜻이 맞는 동료들과 향로를 다시 설정했다.

“기업 인수합병(M&A)시장에서 사모펀드 운용역은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팀원들 간의 조화와 감정을 교류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투자은행(IB)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IB를 경험한 이들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사모펀드 운용사를 차리겠다’라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덕분에 PEF 시장에서의 ‘리더군의 다양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힘도 실력이다”란 말이

주요 PEF 대표이사 경력

이름	김병주	한상원	이상호	김수민	라민상
직책	MBK파트너스 회장	한앤컴퍼니 대표이사	글랜우드PE 대표이사	유니슨캐피탈 대표이사	프랙시스캐피탈 대표이사
학력	하버드대학교 MBA	하버드대학교 MBA	컬럼비아대학교 MBA	컬럼비아대학교 MBA	듀크대학교 MBA
경력	골드만삭스-살로만 스미스바니 근무	모건스탠리PE아시아 최고투자책임자	골드만삭스 상무	베인앤드컴퍼니 부사장	베인앤드컴퍼니 PE그룹 팀장
현재	칼라일그룹 부회장 겸 칼라일아시아 파트너스 회장	모건스탠리PE 한국대표		골드만삭스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 상무

김병주 회장 ‘MBK파트너스’ 국내 최대 PEF로 키워

IB 출신들 “사모펀드는 도전할 만한 가치 있는 직업”

‘베인’은 리더 사관학교… 대기업 CEO 자녀들도 부상

통하는 세상이 PEF의 세계다. 하버드대, 예일대 졸업장 등 화려한 ‘스펙’을 전면에 내건 해외 투자은행(IB) 출신들이 씨앗을 뿌린 후 크게 달라진 거라면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집안 배경을 갖춘 이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김병주 MBK 회장 등 글로벌 IB

‘DNA’ 심어 = PEF 1세대로 MBK파트너스를 설립한 김병주 회장. 그의 뿌리는 미국 금융의 중심 월가다. 열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MBA를 거쳐 곧바로 월가에 입성했다. 씨티그룹(옛 살로만 스미스바니)을 시작으로 1999년엔 미국의 대표적 PEF인 칼라일그룹에 들어가

면서 미국 금융의 정수를 배웠다. 김 회장은 2005년 칼라일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영문 이름 ‘마이클 병주 김’의 앞글자를 딴 MBK파트너스를 설립, 국내 최대 PEF로 키웠다.

15년이 흘렀다. 세대교체도 한창이다. 눈에 띄는 이들은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최근 PEF 업계 ‘라이징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이상호 글랜우드PE 대표가 대표적인 예다. 이대표는 고려대를 졸업한 후 컬럼비아대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2013년까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4년 글랜우드에 합류해 옛 동양매직, 옛 라파즈한라시멘트 등을 사들인 뒤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파는 데 성공하며 회수(엑시트) 실력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이하 베인) 출신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골드만삭스에 이어 베인이 ‘제2의 PEF리더 사관학교’로 통하고 있다. 버클리 프랜차이즈 ‘공차’와 웨딩홀 아펠가모 등을 인수한 유니슨캐피탈의 김수민 대표와 광속용 파트너도 베인 출신이다. 김대표는 베인의 컨설턴트로 커

리어를 시작, 미국에서 MBA 과정을 거친 뒤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인수한 프랙시스캐피탈은 2013년 베인에서 컨설턴트로 함께 일하던 라민상·이관훈·윤준식 대표 3명이 공동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에는 3명의 대표를 포함해 베인 출신이 총 5명이다.

◇‘보이지 않는 힘’ 집안 배경 삼아 성장한 이들도 = 해외 대학이나 해외금융 기관과 같은 ‘스펙’뿐 아니라 화려한 집안 배경을 가진 PEF 리더도 상당수다. 세계 5대 사모펀드로 꼽히는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한국 대표인 이상훈 대표와 이상호 글랜우드PE대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녀다. 처가 집안이 화려한 리더들도 있다. MBK파트너스를 이끄는 김병주 회장은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넷째 사위다.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사위로 하버드대 MBA를 나와 모건스탠리 투자은행을 거쳐 모건스탠리PE 북아시아 대표를 맡다가 2010년 한앤컴퍼니를 차렸다.

김남은 기자 better68@

“올해 트렌드는 퇴직연금·여성”

펀드를 말하다 ①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창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가 재분배되는 수단이 바로 주식이다”

7일 서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본사에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만났다. 미국에서 35년을 보낸 만큼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한다. 팀장과 본부장 제도를 없애고 수직적인 보고 체계에서 자유로운 토론 문화로 회사를 변화시켰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복장도 자유롭다. 펀드도 10여 개로 줄였다. 그 결과 취임 1년 만에 수익률이 업계 48위에서 상위 1%로 뛰어올랐다.

존 리 대표는 “한국은 굉장히 좋은 여건과 펀드멘털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는데 이때야말로 저가 매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연금이나 사회적기업 투자 등이 걸음마 단계인만큼 시장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연금과 여성을 시장 트렌드로 꼽았다. 수요가 늘고 상품이 출시되면 자본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펀드 시장 활성화는 퇴직연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빈부 격차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은 부채비율도 낮고 주식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늘리면 자본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주식비중이 40~50%인 반면 한국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고쳐 퇴직연금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아닌 전문적인 자산운용사가 운용해 규모를 불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우먼펀



한국인 대부분 노후 준비 미흡

가정 주부들도 주식 배워야

국내 최초 ‘우먼펀드’ 출시

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존 리 대표는 “한국여성지수가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며 “여성친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편입된 기업은 자부심을 느끼고,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금융문맹’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뱉었다. 존 리 대표는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은 위험하다고 배우는데 오히려 주식을 안하는 게 위험하다”며 “주식을 통해서도 위험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업에 투자해 부를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또 “특히 사교육비로 자금이 부족한 가정주부도 주식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DLF(파생결합펀드)와 펀드 환매 연기 등 잇따른 사태로 신뢰를 잃은 시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신뢰를 쌓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깨지는 건 순식간”이라며 “미국에서 업계 5위를 기록했던 퍼트남(PUTNAM)은 단 한번의 불완전판매 스캔들로 한달 만에 망했다”고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사진/고이관 기자 photoeran@

잘나가던 부동산 펀드, 증시 활황에 ‘주춤’

정부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

투자자 ‘주식·위험자산’ 선회

펀드 3개월 평균 수익률 -1.3%

리츠 재간접 투자 수익률도 하락

부동산 공모 펀드 수익률이 규제와 조정 등으로 주춤하면서 몰렸던 돈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절적 요인 해소·정책 효과 반영 등 반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국내 공모 부동산 펀드 23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전일 기준 -1.32%다. 같은 기간 공모 해외 부동산 펀드 중에서도 일본 리츠에 재간접 투자하는 펀드와 글로벌 리츠에 재간접 투자하는 펀드도 각각 -2.27%, -0.60%로 낮은 수익을 냈다. 국내 주식형 펀드(10.67%)나 해외 주식형 펀드(8.37%) 대비 한참 낮은 수준이다.

펀드별로 보면 국내 부동산 펀드 중에서는 종로타워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와이즈스타부동산투자신탁 2A’ 클래스가 -1.01%로 가장 수익률이 낮았다. 또 부동산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골든브릿지특별자산 8(-0.01%)’도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는 ‘한국WW베트남부동산개발특별자산 1’이 -18.62%로 가장 수익률이 낮았다. 또 ‘삼성Japan Property부동산투자신탁(-3.27%)’, ‘삼성J-REITs부동산투자신탁 1 C(-2.60%)’, ‘한화JapanREITs부동산투자신탁 1 C-e(-2.51%)’도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

상장지수펀드(ETF)도 마이너스를 피하지 못했다. 국내 리츠(REITs·부동산관리회사)를 담은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는 3개월 평균 -2.13%를 기록했다.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TIGER 미국 MSCI리츠(-2.43%)’와 ‘KINDEX 미국다우존스리츠(-0.67%)’도 마이너스였다.

공모 부동산 펀드 3개월 평균 수익률 (단위: %, 13일 기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자금도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1조5664억 원이 유입된 반면, 부동산 펀드에서는 9억 원이 빠져나갔다.

증시 등 위험자산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 영향이다.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 규제를 강화하면서 운용 여건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다. 리츠 성장세가 둔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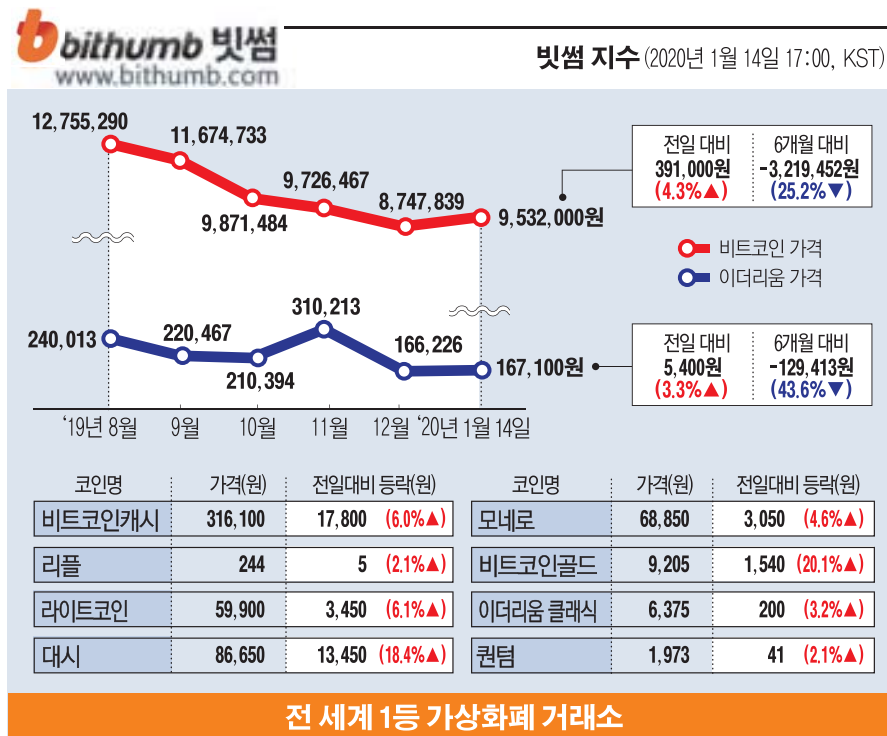
대신증권 글로벌부동산팀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리츠 시장은 △지난해 높은 성과에 따른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 △미·중 1차 무역협상 이후의 위험 선호 재개로 지난해 11월 이후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국내 투자자금이 몰린 국가에

서 조정폭이 커지고 있어 리츠 재간접 형태가 대부분인 해외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반등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여전히 부동산 공모 펀드에 주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공모 금액을 보면 작지않은 규모였던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분위기 자체도 세제 혜택 등이 확대할 것으로 점치고 있고, 신규 부동산 공모 펀드도 출시를 앞두는 등 부동산 펀드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다원 기자 leedw@



6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 後 속속 안전진단 신청 재건축 속도내는 목동 신시가지

5·12단지 이어 2·4단지 신청 추진
9·11단지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
매물 문의 늘면서 집값 뛰어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 커 주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목동은 재건축 기대감에 매입 문의가 늘고 있어요. 워낙 매물이 귀한 탓에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며 호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 T공인 관계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주택시장이 재건축 사업 기대감에 들쭉거리고 있다. 올해 초 목동 6단지 정밀안전진단(1차) 통과 이후 나머지 단지들도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르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까닭이다. ‘학군 특수’로 12·16 대책 이후에도 강세를 보였던 목동 집값이 재건축 호재로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1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2·4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신청 비용 모금을 완료하고 전일 안전진단비용 고지서 발급을 요청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비용 납부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목동 2·4단지 정밀안전진단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동 2단지 소유자 모임 관계자는 “단 10일 만에 비용 모금이 완료될 정도로 재건축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 주



중 비용 납부를 완료하고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전진단비용 고지서 발급을 요청했던 12단지는 민간정비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5단지는 입찰공고를 냈다.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9, 11단지는 정밀진단 표본조사 등 선정 등에 나섰다.

여기에 작년 말 목동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1~3단지 중상향(용도지역을 2·3종으로 높여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것) 문제도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처럼 목동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자 집값도 덩달아 들쭉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목동 1단지 전용 64.34㎡형은 지난달 29일 13억 원에 팔리

며 한 달 전 거래가(12억5000만 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4단지 전용 47.25㎡형도 지난달 21일 10억4900만 원에 매매계약됐다. 불과 보름 전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9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매물이 워낙 없어 신고가 거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호가로는 이미 신고가 경신에 나선 단지가 다수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실제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 전용 95㎡형의 경우 10월 15억9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17억6000만~18억5000만 원을 호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통과가 곧바로 재건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기대감은 금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작년 연말 12·16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 강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심교연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서 공급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아파트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음에도 공공기관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출처: 강동구청			
사업 개요	위치	강동구 둔촌동	
	정비계획	지하8층/지상7~35층, 85동, 1만2032가구	
	일반 분양가격 (조합 의결안)	3.3㎡당 평균 3550만 원	
사업 추진 현황	2006년 11월 2일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2009년 12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30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2일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년 10월 24일	철거신고 처리	
	2019년 5월 10일	사업시행(변경)인가	
	2020년 1월	강동구청,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검토 중	

서울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조만간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1만 가구 중 일반분양 4800가구
조합, 3.3㎡당 3550만원 의결
강남권보다 1000만원 이상 낮아
HUG와 조율서 더 낮아질 수도

서울 재건축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조만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격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14일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해 특별한 결정 사유가 없으면 일주일 이내에 인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은 작년 말 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공사계약 변경 등 14개 사안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 절차를 거쳤다. 특히 안전 기준 가운데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평균 3550만 원,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평균 2725만 원에 책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강동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 조합은 HUG와 분양가격 조율에 나서게 된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전체 가구 수가 1만 가구를 넘고, 일반분양 물량만 4800가구에 육박하는 단일 규모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다.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도 분양 시기가 다가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격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는 저렴할 것이란

기대감이 일찌감치 형성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청약 당첨 가점 최고점으로 79점이 나온 강남구 개포동 ‘프레지던스 자이’(개포4단지 재건축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47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조합에서 내세운 분양가로 분양해도 다른 강남권과 비교하면 3.3㎡당 100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HUG와 분양가 조율 과정에서 분양가격이 더 낮아질 경우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강동구 둔촌동은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속해 분양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속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4월까지 분양에 나서야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분양가격을 놓고 HUG와의 조율 과정이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HUG가 일반분양가를 3.3㎡당 2600만 원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시공사로 참여한다. 단지명은 ‘텔루시아’, ‘에비뉴포레’, ‘이스텔라’ 등 3개 후보군이 거론됐는데 작년 총회에서 텔루시아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유동자금 몰린 리츠 자산규모 50兆 육박

2018년보다 12.7% 증가한 48.7조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와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동산 간접투자인 리츠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리츠 정보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전월 기준 48조7000억원을 넘었다. 이는 2018년(43조2000억

원) 대비 약 12.7% 증가한 금액이다.

인가 또는 등록된 리츠 업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33곳, 2018년 34곳이었던 업체 수는 지난해 49곳으로 늘었다. 2년 연속 증가세다. 상장 리츠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상장된 리츠업체는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 2곳으로 현재 총 7개의 리츠 업체가 상장돼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츠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은 토픽성격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알고 다르다면,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왔을까? 공공단체가 재공해주는 대수일 말고 실권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수일 이자,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수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694면 240쪽 / 2019년 / 국문판권 / 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3년을 5000년으로 바꿔주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게 함은 물론, 같이 읽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정호 지음 / 232쪽 / 4800원 / 14,800원

트럼프 앞마당서 ‘대북제재 완화’ 외친 박원순

워싱턴서 美 외교협회 초청 연설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반감
국무부 차관과 한반도 평화 논의

미국 순방 막바지에 들어선 박원순 서울 시장이 워싱턴DC에서 외교·안보 분야 인사 등을 만나며 정치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이 취약한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면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13일(현지시간)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으로 좌담회를 갖고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다. 해당 자리에는 워싱턴 외교인사, 미국 내 한국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CFR는 미국 전·현직 정관계 인사로 구성된 외교·안보 정책 싱크탱크로 1921년 설립됐다. 저명 정치인, 정부 관료, 경제계 지도자, 법조인 등 4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박 시장이 미국외교협회 초청 연설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시장은 2014년 워싱턴DC 방문에서도 ‘약순환에서 선순환으로의 변화-협치, 인간의 존엄, 전략적 현실주의, 신뢰형성’을 주제로 연설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답으로 △인도적 교류와 학술, 스포츠, 문화 교류 등의 대북 제재 완화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및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자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긴장과 갈등, 무력충돌은 서울 시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 번영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이자 서울디스카운트”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선택이 아닌 평화로 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한반도에 불안한 기류가 흐르는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다섯 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민에게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박 시장은 미 국무부 브라이언 블라타오 차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박원순 시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내셔널몰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있는 사진제공 서울시

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 시장과 블라타오 차관은 서울시 대표단과 미 국무부 외교안보 책임자 등 주요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하며 양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전날 박 시장은 캐슬린 스티븐슨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구한말 자주외교의 상징적 공간인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찾았다. 캐슬린 스티븐슨 소장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으며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다. 워싱턴=김진희 기자 jh6945@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18만원 대형마트 22만원

올 설에 서울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보다 15% 싸게 차례상 차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14일 서울 시내 25개 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76곳을 대상으로 2020년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이 7일 서울시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25곳 등을 직접 방문해 주요 설 성수품의 소매 비용을 조사했다.

설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18만7718원으로 전년 대비 5.4% 상승했다.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22만559원으로 전년 대비 1.6% 하락, 올해에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5%가량 저렴했다.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의 구매 비용은 17만21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9%, 23%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설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가락시장 기준)으로 사과는 전체적인 생산량 증가와 품질 하락에 따른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일부 고품질 출하 지역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시세 편차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배는 전년도 재고물량 증가, 품질 하락, 이른 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가 전망된다.

배추와 무는 월동배추의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와 전년 대비 줄어든 물량 등으로 강세 유지가 예상된다.

명태와 명태포는 러시아산 냉동명태의 수입 감소와 설 수요 등으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 등으로 향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도 어획량 감소와 설 수요 등으로 강세 유지가 예상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이명희 재판 증인들 “사모님, 욕설·폭행 안했다”

‘상습폭행’ 2차 공판서 피해 부인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사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직원들이 폭행·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이 씨의 운전기사와 경비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상습특수상행 등 사건 2차 공판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이 씨가 업무적으로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욕설이나 폭행을 하거나 이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먼저 경비원 A 씨는 “사모님(이 씨)이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고함을 치는 것은 봤지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아닌칠 때만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평상시처럼 대해준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B 씨도 “운전 중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가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다”며 “이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욕설이나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3월 2일 오후 2시에 이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추가 증인신문과 이 씨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호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재미공감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자세한 상품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자세히 보면 보장의 차이가 보입니다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갱신형)무배당

암 진단비 감액기간없이 100%보장
(암보장 개시일 90일 이후,
소액암, 유사암 제외)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도
주계약 보장으로 보장범위 확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본 상품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 을 검색해보세요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심의필제 2019-03796호 (2019.12.03) 준법감시인확인필 CS 19-12-10



“벤츠 성장비결은 품질·모델·사회공헌”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

2015년 취임 이듬해부터

BMW 넘어 줄곧 수입차 1위

주한유럽상의 회장 맡아

산업규제 백서 정부에 전달도

“7만8133대”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기록한 판매 실적이다. 한 국내 완성차 업체보다 더 많은 차를 내수 시장에 팔았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최고 판매량을 잡아치우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만 17%에 달한다. 벤츠의 무서운 성장세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취임한 뒤 시작됐다.
1992년 메르세데스-벤츠 그리스에서 일을 시작한 실라키스 사장은 브라질 법인 승용 부문 대표를 거쳐 2015년 한국 법인 대표에 취임했다. 당시 벤츠는 BMW에 밀려 수입차 시장 2위에 머물렀지만, 그의 취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3년 임기가 끝난 뒤에도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1년 더 벤츠코리아를 맡고 있다.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그는 “벤츠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14일 EQ Future 전시관에서 개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2020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이런 성장의 비결은 품질·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사회공헌 세 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처럼 벤츠는 판매 이후의 서비스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014년 36개였던 서비스 센터는 지난해 68개로 늘었고, 신속한 부품 공급을 위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부품물류센터를 두 배로 확장했다.
고객의 변화하는 수요를 파악해 세단과

SUV뿐 아니라 고성능 AMG, 전기차 EQ 등의 서브 브랜드 모델도 새로 선보였다. 지난해 벤츠가 한국 시장에 출시한 차만 해도 부분변경 모델을 포함해 10종에 달한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서며 고객과의 접점을 넓혔다. 실라키스 사장은 구체적인 올해 판매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한국 시장에서 선두주자 위치를 유지하고 싶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벤츠뿐 아니라 2017년부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CK)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업 규제와 관련한 180여 개 건의사항을 포함한 백서를 발표해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유럽 기업 360곳의 의견을 대변해 규제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실라키스 사장은 “백서에 담긴 규제 개선이 모든 투자자를 비롯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라키스 사장의 임기는 올해까지다. 그가 거둔 성과만큼 향후 거취에 관한 업계의 관심도 많지만, 실라키스 사장은 말을 아꼈다. 그는 “5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해 기뻛고, 개인적인 삶에도 좋은 시간이었다. 한국에 오기 전 라틴 아메리카에도 6년 반 정도 있었는데, 너무 이른 질문 아닌가 싶다”며 멋쩍게 웃었다.
유창욱 기자 woogi@

‘기생충’ 아카데미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봉준호 감독 “이런 순간이 닥치리라곤...”

“처음 영화를 만들 때는 이런 순간까지 닥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는데, 흥분되고 기쁘네요.”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감독한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자, “(언어의) 경계가 다 깨져 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봉 감독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룬 영화와 TV 시리즈가 많았지만, ‘기생충’은 스토리나 표현 방식이 새로워서 인기를 끈 것 같다”면서 “스토리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기생충’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데 이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도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언어의 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사회 전체가 장벽이 낮아지는 느낌이다. 우리 영화가 그런 흐름의 혜택을 본 것 같다”고 겸손하게 입장을 전했다.



앞서 ‘기생충’은 이날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발표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후보 발표에서 작품상(베스트픽처) 후보에 지명됐다. 봉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고, ‘기생충’ 각본을 쓴 한진원 작가와 함께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다. 양진모 편집자는 편집상 후보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기생충’은 미술상과 국제영화상 부문에도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옛 코닥극장)에서 열린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카를로스 곤 “퇴직수당 내나라” 르노 상대 소송

본사 있는 佛 노동법원에 소 제기

일본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사진) 전 닛산-르노 회장이 프랑스 자동차회사 르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르노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의 노동법원에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르노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한 곤 전 회장은 르노가 자신에게 퇴직금으로 28만 달러(약 3억2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금과 미지급 보수



등으로 86만 달러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NHK는 전했다.
앞서 르노 이사회는 지난해 2월 곤 전 회장이 경쟁사 이직 금지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미지급 성과급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퇴직금 등의 지급규정상 곤 전 회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관련 권리들을 상실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르노에서의 사임을 우스운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대표이사직 물러나

경영 참여는 계속...최승남 부회장 중심 IPO 속도 낼 듯

김상열(사진) 호반건설 회장이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호반건설은 김 회장을 지난해 12월 9일(등기일 12월 9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철희 사장과 김 회장과 함께 호반건설 대표 자리에서 퇴진했다. 대신 최승남 부회장이 새로 대표이사로 등기됐다. 송종민 대표는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인사로 호반건설의 대표 이사진은

‘김상열·송종민·박철희’ 3인 체제에서 ‘최승남·송종민’ 2인 체제로 개편됐다.
최 부회장이 경영 일선을 이끌게 되면서 호반건설의 기업공개(IPO)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연말 최승남 당시 호반호텔&리조트 대표를 그룹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이번 임원 인사에서는 다가오는 기업 공개를 대비하고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지속 성



장을 위해 업계에서 검증된 전문 경영인을 각 계열사 대표로 전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지낸 금융통으로 2015년 호반그룹에 영입된 후 울트라건설, 리솔리조트 등 굴직한 인수·합병(M&A)을 이끌었다.
김 회장은 막후에서 IPO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은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검사내전’ 김웅 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해 사의

내부통신망에 “거대한 사기극...국민은 어디에 있었나”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전달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

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



찰의 충성을맞겨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담당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평범한 검사들 생활을 재미있게 풀어써 화제가 된 ‘검사내전’ 저자이기도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日 괴짜 사업가 “우주여행 같이 갈 여친 찾아요”

조조타운 설립자 마에자와

일본 괴짜 사업가가 우주여행을 함께 떠날 여자 친구를 찾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일본 2위 부호이자 사업가 마에자와 유사쿠(사진) 조조타운 설립자가 그의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여친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여배우 고리키 아이메와 최근 헤어진 그는 일본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함께할 ‘여성’ 인생 동반자를 찾고 있다.



조조타운은 20세 이상의 싱글 여성으로, 밝고 긍정적인여야 하며, 우주여행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면 더 좋다. 신청 마감은 17일이고, 3월 말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키와 직업, 사진, 몸무게를 밝혀야 하고 특기, 장점 등을 알려야 한다. 여친 찾는 과정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스트리밍 채널 ‘아베마TV(ABEMA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권태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이사관 승진 △기반시설국 교통계획과장 김상기
◆코트라 ◇상임이사 △무역기반본부장 류재원
◆주택금융공사 ◇부장 △정책모기지부 이철우 △유동화증권부 김남혁 △신탁자산부 김석준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 박광길 △사업자보증부 허범성 △ICT전략부 김병석 △ICT운영부 강재현 △ICT개발추진단 임태완 △주택금융연구원 조사연구실 류수복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지원실 서원준 ◇지사장 △서울중부 이영태 △서울남부

김진구 △서울서부 한병호 △서울동부 김윤수 △대구 서정훈 △광주 임대근 △경기 남부 허승 △강원서부 오택균 △충북 이관재 △충남 강희수 △전북 손진국 △경북 황재훈 △경남동부 김정기 △제주 오주한
◆신영그룹 ·신영 ◇전무 승진 △개발사업본부 손종구 △재경본부 최광철 ·신영에셋·신영자산관리 ◇대표 승진 △이병희
◆KBS △스포츠국 스포츠중계부장 김민철 △" 스포츠콘텐츠제작부장 이원규
◆한국미디어네트워크 ◇테일리한국 △부사장 겸 편집국장 곽태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최영은 △부국장 겸 산업부장 최인웅 △정치경제부장 이정우 ◇주간한국 △부사장 겸 편집국장 윤구현 ◇한국아이닷컴 △부사장 김창환

부음

▲한준수(전 연기군수) 씨 별세,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씨 부친상 = 14일, 대전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VIP 5호실, 발인 16일, 장지 마석 모란공원, 042-825-9494
▲남기자 씨 별세, 조윤용 씨 부인상, 조찬제(경향신문 선임기자)·영이(전 영주농협 상무)·명희(고양성사초교사)·상이(대전서부초교사) 씨 모친상, 서정걸(전 영주시안정면 부면장) 씨 장모상 = 14일, 영주자인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54-635-3400
▲방영훈(전 일간스포츠 연예부장) 씨 별세, 방효중 씨 부친상 = 14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031-900-0444

인천·부산·당진 사업장 주민에 동국제강, 27년째 나눔 활동

동국제강이 설 명절을 앞두고 산하 송원문화재단과 함께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14일 인천 송현동, 화수동 일대 지역 주민 80명을 인천공장으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고 생활지원금과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15일 부산공장, 17일 당진공장에서도 각각 인근 지역주민들을 초청했다.
동국제강은 인천, 부산, 당진 지역 주민



150명에게 생활지원금 375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강의 생활지원금 전달 행사는 1994년 시작해 2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650여 명에게 약 19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유상증자 바로 보기

연말연초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분주하다. 목적은 제각각이지만 경기불황 속에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차입과 증자 두 가지로 보면 맞다. 모두 자금 증가 효과가 있지만 손익과 현금 흐름, 재무구조 등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증자 자체가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회사 상황과 자금 조달 목적 등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분명 호재다.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하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성장단계의 기업들은 직접 금융을 선호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당 순이익(EPS)이 내려가는 희석효과 역시 불가피하다. 또 증자 후 일시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악재다.

유상증자 종류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비해 3자배정의 경우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확실히 높다. 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장기업이 일반투자자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신주에 대한 인수권을 부여해 자금을 조달하는 증자 방식이다. 자금난에 시달렸던 회사가 ‘백기사’로 인식되는 제3자를 찾은 만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공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하고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장사들은 3자배정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데스크칼럼

이 채 용

자본시장1부장



일부 세력이 부실한 상장사들이 진행하는 3자배정 증자에 참여해 횡령이나 주가조작을 일삼는 일도 많은 만큼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자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주주 배정 방식에서 실권을 하는 경우나 회사가 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증자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지분을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향후 기업의 수익에 대한 권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유상증자는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반면 차입은 기업 입장에서 이자비용이 늘면서 손익 및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힘들다. 또 부채가 과도해지면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차입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 유상증자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차입이 과도해지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에 나서는 사례가 많

다.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 기업의 변화에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자금조달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순간마다 일정한 상승이나 하락압력이 있다. 오르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불필요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공시에 나타난 일정별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배정기준일은 증자 국면에서 중대한 고비다. 배정기준일은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증자 참여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주식을 산 날로부터 3일째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배정기준일 이전까지 주식을 사야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이나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일 때는 배정기준일까지 매수가 증가하면서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권리락도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꼭 파악해야 할 요소다.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진 주식을 배정기준일 전날과 같은 조건으로 사는 것은 불공평하다. 때문에 기준일 다음 날은 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만큼 깎아내린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된다. 이걸 권리락이라고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권리락으로 떨어진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대세 상승기에는 권리락 회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권리락 직후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 반대로 주가 하락기에는 회복 기간이 더딘 만큼 권리락을 노린 단기투자는 자제하는 게 맞다.

mywish73@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부 차장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ic Show) 2020’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탓에 올해 행사에선 중국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때 수백 곳에 달했던 중국 참가 기업이 올해는 고작 40여 곳에 머물렀으니까요.

거꾸로 우리 참여 기업이 380곳을 넘어 서면서 한국이 최대참여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 기업(360곳)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CES 행사 분위기는 경기도 어디쯤에서 열리는 전시 컨벤션과 비슷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그룹 등이 부스를 크게 마련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기술력과 사업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산업 장르를 파괴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대거 참여했고, 전자IT 기업들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적어도 라스베이거스 행사장에 머

CES까지 와서 정치하세요?

물려 있는 시간만큼은 ‘2025년’의 삶을 미리 체험하기에 충분했지요.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까지 앞다퉈 라스베이거스에 모여들었습니다. 일부 경제단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참관단을 꾸렸다”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으니까요. 급변하는 글로벌 IT 기술과 그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미래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국회 특정 상임위 국회의원 등이 대거 모이다 보니 라스베이거스에는 또 하나의 정치판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CES 현장에서 만난, 정부 부처를 출입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한 사무관은 “혹시 00당 000 의원이 오늘 오후에 어느 부스에 가시는지 아느냐”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꼬깃꼬깃하게 접은 메모지에는 CES 참관 정치인 및 단체장의 이름과 동선이 빼곡하게 메모돼 있었습니다. 열주 동선을 따져보니 제가 쥐고 있는 전시 일정표와 전혀 무관해 보였습니다.

CES 현장의 정치적 행보는 시작 전부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CES에 참관할 것이라는 소문이 쏟아지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이른바 ‘얼굴이 신분증’인 정치인들도 정당 관계자와 경제단체장과 미팅 일정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만나도 될 텐데 굳이 먼 미국까지 날아와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해외’라는 특수성을 심분 활용하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직전, 특정 부스에 정치인들이 몰린다. 여기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식사자리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짜기도 한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정치인은 주요 기업에 “몇 시에 전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정치 행보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씁쓸함을 남깁니다. 현장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뛰고 있는 기업 관계자를 불러놓고 과도한 의견을 요구하는 정치 행보도 분명 사라져야 합니다.

junior@

사설

시장과 싸우겠다는 부동산정책 악순환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추가대책이 돈줄을 더 옥죄고, 집을 가진 사람의 세(稅)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확대해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한편, 채권입찰제와 주택거래하기제까지 도입하는 등의 극단적 조치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초강력 규제를 서슴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마디로 시장과 끝없이 싸우겠다는 얘기다. 솔직히 걱정부터 앞선다. 정부의 투기차단 의지는 좋고, 부동산시장 안정의 당위성에도 이론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속성을 무시하고, 시장과의 정합성(整合性)을 결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계속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의 ‘6·19 대책’을 비롯해,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그동안 강력한 규제가 수도 없이 쏟아졌다. 굵직한 조치만 모두 18차례다. 그럼에도 집값은 오르기만 했다. 잠시 주춤하는 듯하다가 규제를 비웃듯 다시 튀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년 동안 40%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24만여 건을 전수조사(부동산 114)한 결과이니, 뺄뺄기식 호가(呼價) 높이기의 허수가 배제된 시장가격이다.

작년 되살린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과 금지를 골자로 한 최근의 ‘12·16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의 대폭 인상 조치만 해도 그렇다. 집값에 선행하는 전셋값이 서울에서 급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청약시장의 ‘로또 아파트’ 열풍을 낳고 있다. 급격한 보유세 올리기는 투기와 무관한 집값 비싼 지역 1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고통스러워할 지경이다.

정부는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거래가 얼어붙고 금매물이 출현하면서 잠시 집값이 주춤하는 것을 시장의 안정으로 판단한다면 착각이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의 역발은 늘 단기적이었고, 더 강력한 규제로 이어졌지만 시장의 불신과 내성만 키운 채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문제의 본질은 주택 수요를 투기로만 규정짓고, 공급 대책 없이 수요만 강압적으로 누르는 규제 일변도였다는 데 있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으로는 결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세무, 특!

한 주 남은 주택임대 소득 신고

2019년에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됐고,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도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한다.

연간 주택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 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둘 중 세 부담이 적은 쪽으로 유리

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60%(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장부를 작성해 실제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세법상 경비율에 따라 경비를 공제한다.

또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금액이 큰 경우 종합과세가 불리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애 따른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2020년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Play Interactive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K5



| Interactive Technology |
음성인식 제어 • 테마형 클러스터 • 공기청정 시스템 • 하차 후 최종 목적지 안내 • 카투홀

The Power to Surprise

www.kia.com
귀일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AUTO 인간공정상을 위한
자동차대상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K5 1.6 T-GDI 17인치 자동8단 복합 13.8km/ℓ (도시 : 12.3km/ℓ, 고속도로 : 16.2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20kg | 복합CO₂배출량 121g/km ~ 2등급 • K5 1.6 T-GDI 17인치(일트인형 보조배터리 장착) 자동8단 복합 13.6km/ℓ (도시 : 12.0km/ℓ, 고속도로 : 16.1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20kg | 복합CO₂배출량 123g/km ~ 3등급 • K5 1.6 T-GDI 18인치 자동8단 복합 13.2km/ℓ (도시 : 11.8km/ℓ, 고속도로 : 15.4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50kg | 복합CO₂배출량 127g/km ~ 3등급 • K5 1.6 T-GDI 19인치 자동8단 복합 12.9km/ℓ (도시 : 11.4km/ℓ, 고속도로 : 15.1km/ℓ)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80kg | 복합CO₂배출량 130g/km ~ 3등급 • K5 2.0 가솔린 17인치 자동6단 복합 13.0km/ℓ (도시 : 11.5km/ℓ, 고속도로 : 15.2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19kg | 복합CO₂배출량 129g/km ~ 3등급 • K5 2.0 가솔린 18인치 자동6단 복합 12.7km/ℓ (도시 : 11.3km/ℓ, 고속도로 : 14.8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39kg | 복합CO₂배출량 132g/km ~ 3등급 • K5 2.0 LPI 16인치 자동6단 복합 10.2km/ℓ (도시 : 9.0km/ℓ, 고속도로 : 12.0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00kg | 복합CO₂배출량 128g/km ~ 4등급 • K5 2.0 LPI 17인치 자동5단 복합 10.0km/ℓ (도시 : 8.8km/ℓ, 고속도로 : 11.8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25kg | 복합CO₂배출량 131g/km ~ 4등급 • K5 2.0 LPI 18인치 자동6단 복합 9.8km/ℓ (도시 : 8.7km/ℓ, 고속도로 : 11.4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45kg | 복합CO₂배출량 133g/km ~ 4등급 • K5 2.0 LPI 18인치(일트인형 보조배터리 장착) 자동6단 복합 9.6km/ℓ (도시 : 8.5km/ℓ, 고속도로 : 11.2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45kg | 복합CO₂배출량 136g/km ~ 4등급 • K5 2.0 하이브리드 16인치 자동6단 복합 20.1km/ℓ (도시 : 19.9km/ℓ, 고속도로 : 20.2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5kg | 복합CO₂배출량 79g/km ~ 1등급 • K5 2.0 하이브리드 16인치(일트인형 장착) 자동6단 복합 19.7km/ℓ (도시 : 19.4km/ℓ, 고속도로 : 20.0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5kg | 복합CO₂배출량 81g/km ~ 1등급 • K5 2.0 하이브리드 17인치 자동6단 복합 19.1km/ℓ (도시 : 18.8km/ℓ, 고속도로 : 19.3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15kg | 복합CO₂배출량 83g/km ~ 1등급 • K5 2.0 하이브리드 17인치(일트인형 장착) 자동6단 복합 18.8km/ℓ (도시 : 18.3km/ℓ, 고속도로 : 19.3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15kg | 복합CO₂배출량 85g/km ~ 1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